



[현대차 美 경영진 인터뷰] 북미시장 도전 가속화 비결 듣다 03



Economy

코스피	2206.39 (0.00)	코스닥	673.03 (0.00)
금리 (미국 3년)	1.43 (+0.01)	환율 (원/달러)	1161.30 (+2.20) (10일)

Q 르포 | 국내 최초 무인 자동화 '이마트 청계천점' 가보니

# 온라인 주문제품, 매장에서 로봇 통해 픽업

SSG닷컴, '픽셀' 서비스 시작  
배송방식 중 청계천점 픽업 신설

이마트 청계천점이 국내 최초로 SSG닷컴의 주문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크레인 로봇이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로봇 픽업 서비스를 선보여 온·오프라인 통합 하이테크 매장으로 변신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도와주는 직원은 상주하지만, 전체 픽업 과정은 무인으로 자동화돼 운영된다.



'픽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 자리잡은 이마트 청계천점 지하 1층의 매장 위로 제품이 배달되는 컨베이어벨트가 보인다. SSG닷컴 인기 상품을 파는 지하 1층 코너는 무인계산대로만 운영된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키오스크의 기술적인 부분은 계열사인 신세계아이앤씨가 담당했다.

'PIXEL'은 'PICK-CELL'의 줄임말로, 온라인 주문한 물건을 지정된 셀(바스켓을 놓는 곳)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픽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로 이마트 청계천점은 '하이브리드 스마트 O2O(온·오프라인 연계)' 매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SSG닷컴에는 최근 '픽셀'이라는 카

테고리가 생겨났으며, 10일부터 배송 방식 중 '청계천점 픽업'이 신설됐다. 청계천점 측 배송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중 원하는 시간을 정해 배송받을 수 있다.

11일 이 매장의 키오스크에 방문하니 주문 바코드를 인식하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바코드를 스캔하자 로봇 크레인이 바코드 정보로 위치를 파악해 셀에 있는 바스켓을 가져왔다. <4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세계 첫 감사인 지정제 회계법인 역대급 교체

(220개 상장사)

## 회계감사 시각변동

### <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국내 주요대기업 외부감사인 교체 삼성, 40년 만에 삼일→안진 지정 안진, 전담팀 구성 등 감사에 사활

당국, 기업-감사인 충돌대비 만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수십 년 만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교체하면서 회계감사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장사 입장에서 새로운 감사인의 '간간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감사인은 이전 감사인의 회계처리 관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회계 감독당국은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앞서 감사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에 회계법인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책임감도 크다.

특히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감사하게 된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회사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감사가 잘못되면 안진이 아닌 글로벌 파트너사인 딜로이트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최고의 인력이 상당히 꼼꼼하게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삼성전자-안진, 만반의 준비

올해부터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220개 기업의 감사인이 바뀌었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

(주요기업의 감사인 지정현황)

기업	감사인 지정 현황
삼성전자	삼일→안진
SK하이닉스	삼정→삼일
신한지주	삼정→삼일
KB금융	삼일→삼정
삼성생명	삼일→삼정
카카오	삼일→삼정
엔씨소프트	삼정→삼덕
삼성전기	한영→삼일
에스오일	삼일→삼정
롯데케미칼	한영→삼일
미래에셋대우	삼정→삼일
CJ제일제당	삼일→한영

/금융감독원

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과 기업 간의 유착을 없애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지정감사는 우선 자산 규모 1826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J, 신한·KB금융그룹, 삼성생명 등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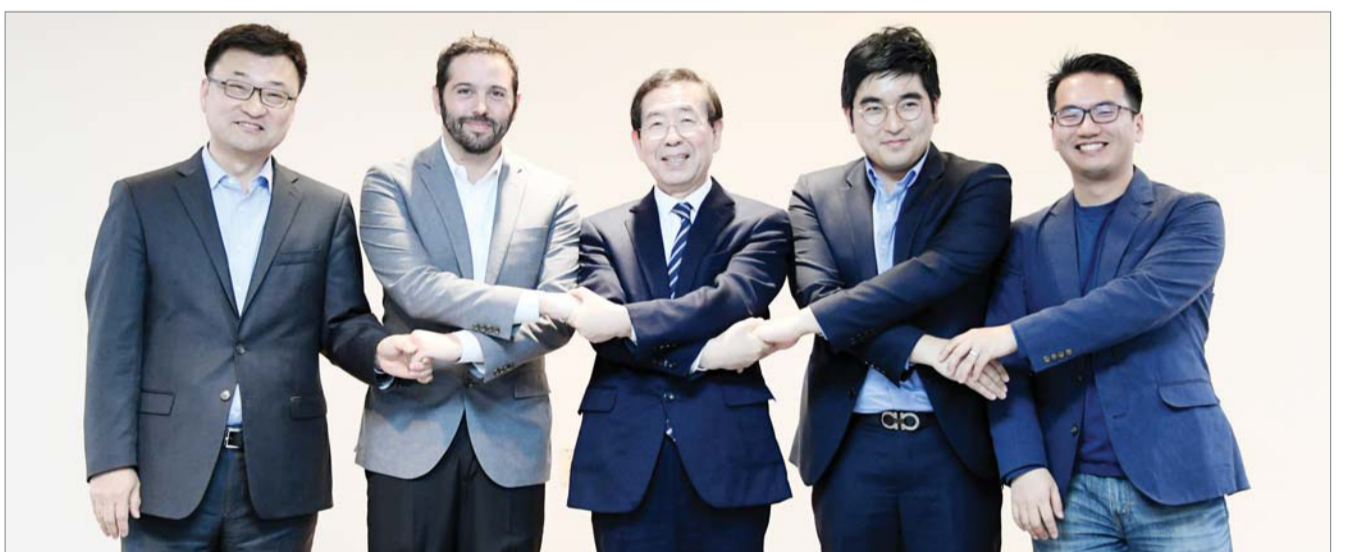
시장의 이목이 쏠린 곳은 40년 만에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삼성전자다.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온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안진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다.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법인 감사인 역시 PwC에서 안진의 글로벌파트너사인 딜로이트로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안진이 삼성전자 감사인이 된 것 자체가 '독이 든 성배'라고 말한다.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삼일(1801명)의 절반인 835명에 불과하고, 삼일이 40년간 만들어온 회계인 만큼 소위 관행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약속'이 있을 수 있어서다. 안진은 그런 '약속'들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서울시, 美 신성장 기업 대서울 투자 맞손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에서 미국 현지의 신성장 유망기업 4개사와 총 2억3000만 불(한화 약 27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서울로 유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L7면>

/연합뉴스

# 일상에 들어온 AI·모빌리티 삼성·LG '두각'



삼성·LG 등 AI 기술 대거 선보여 IT·모빌리티 기업간 경계 허물어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0'이 막을 내렸다. CES는 전 세계의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 5면>

올해에는 인공지능(AI), 5G,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을 큰 주제로 4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제품 영상을 찍으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부터 꼼꼼히 메모하는 사람까지 전시장 곳곳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제품을 보기 위해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 ◆일상에 들어온 AI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AI는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됐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과 로봇이 이르기까지 AI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찾기 어려웠다. 가정에서 AI를 통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홈을 구현한 업체들도 눈에 띄었다.

전시 내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기술

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공 모양의 지능형 컴패니언 로봇인 '볼리'를 기조연설을 통해 첫 공개했다. "하이 볼리"라고 부르면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 가까이 간다. 또한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TV, 청소기 등과 연동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은 2020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한 단계 진화한 '푸드 AI'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8K TV에도 AI 기술을 적용했다.

LG전자는 대규모의 LG 씽큐존을 구성해 인공지능 선도 이미지를 부각했다. <4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



딜로이트안진 여의도 본사.



EY한영 회계법인 여의도 본사. /손영지 기자

# ‘국민연금 재정난·사적연금 걸음마’ 독립적기구 설치, 연금개혁 나서야

**보험연구원, OECD 연금정책·시사점**  
**한국 국민연금, 구조적 수지불균형**  
**기금 소진시점 이르면 2057년**  
**“상생 공사연금 개혁에 주목을”**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은 고령화 문제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발간한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공적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9%, 급여수준 40%(소득대체율)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수지불균형 상태다. 이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빨라져 보험료 상향 등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2014년부터 제안돼 왔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의 연금체계 분류)

구분	공적연금 보완형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 대체형 (베버리지형)
목적	·은퇴이전의 생활수준 유지 (상대적 생활수준)	·빈곤완화 및 최저소득보장 (절대적 생활수준)
운영형태	사회보험기반의 소득비례연금	정액급여의 기초연금
재원조달	사회보험료	조세
공적연금역할	높음	낮음
사적연금역할	제한적(공적연금 보완)	확대(공적연금 대체)
국가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미국, 한국 등	영국,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자료=이용하·정해석(2008),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OECD(2019), Pension at a Glance 등을 참조하여 작성.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연금 제도적 특성을 갖는 OECD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국가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적연금 역할에 따라 공적연금 보완형과 공적연금 대체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보완형 체계에 가깝다.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경우 부분적, 혹은 근본적 개혁으로 진행됐고 사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을 보완하되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개혁은 부분적 개혁으로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재정안정화 조치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소득보장 강화 정책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본적 개혁으로는 연금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변경하는 전면적 개혁과 부분민영화, 최저보증연금 도입이 추진됐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적 격 개인연금(미스터연금), 가입범위 확대(전업주부 가입), 준강제화(자동가입제도), 세제혜택 강화(배이비부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은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공적연금 내실화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공사연금 개혁 방향으로 추진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설 앞두고 붐비는 전통시장

12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구입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브렉시트, 美·中 무역분쟁 등 내년, 세계경제 위협요소 잠재

**한은 ‘2020 이후 경제 주요이슈 2’**  
**올해, 국가별 선거 등 정치적 이슈**  
**경제정책 불확실성 고조될 전망**

2020년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홍콩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미·중 및 미·EU(유럽연합) 무역분쟁과 같은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위협요소가 잠재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2’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미·중, 미·EU 간 무역갈등 재부각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이슈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경우 노딜(nondeal) 가능성은 줄었으나 향후 EU와 영국 간 통상관계 협상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사태는 올해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전후로 시위양상이 재차 과격해질 여지가 있다.

최근 불거진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의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역갈등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협상 의제가 중국의 제도 및 경제구조와 연관되어 있어 양측이 추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김희주 기자

## 데이터 3법 통과... 핀테크 혁신 빨라진다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시행**  
**기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박차”**  
**시민단체 “소비자 권리침해 등 우려”**

1년 넘게 표류했던 신용정보법이 우려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금융권을 비롯한 IT(정보기술), 핀테크 기업 등은 일제히 환영하는 모양새다. 다만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의 이윤추구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기업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담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중 신용정보법은 금융권 전반의 데이터 활용체계를 바꿀 수 있어 금융업계의 기대를 모아왔다. 신용정보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 “금융서비스 출시 빨라질 수 있어”  
 신용정보법이 통과하자 금융권을 비롯한 IT, 핀테크 기업은 일제히 환영했다. 빅데이터 활용이 한층 자유로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면서 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대운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통과에 맞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CB)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카드, 보험사 등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알기 쉽게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고객의 카드거래내역과 보험정보, 투자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와 자산, 대출 등을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과 조건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개인정보 악용될 수 있어”...우려 목소리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이윤추구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안장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고, 데이터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는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 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됐다”며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현대건설, 옥수동 재건축에 ‘디에이치’ 제시

시공 선정엔 ‘한남 디에이치 그라비체’

현대건설은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단지에 ‘한남 디에이치 그라비체’를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강북권에서 최초로 ‘디에이치(THE H)’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그라비체’는 축복의 땅을 의미하는 ‘그레이스(Grace)’와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비바체(Vivace)’의 합성어로 축복과 건강을 지켜주는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지난 1982년 준공된 한남하이츠는 강북권 최고의 한강 조망으로 강변북로와 3호선 등을 끼고 있는 입지다. 게다가 국회의원, 기업인, 연예인 등 정·

계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부촌’으로 명성을 이어온 곳이다.

현대건설은 최고의 입지조건, 최상의 조망권, 원조 부촌의 명성을 이은 한남하이츠에 건설명가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특별한 전략을 공개했다. ‘한남 디에이치 그라비체’는 지하6층, 지상9층~20층 규모로 총 10개동 790가구,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최고급 명품 아파트 설계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설계그룹사인 에스엠디피(SMDP)와 손을 잡았다. 에스엠디피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등 프리미엄 아파트 설계에 탁월한 실적을 갖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팰리세이드 물량 달려 더 못 팔아… 픽업트럭에도 도전”

## 북미시장 도전 가속화 비결 듣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라인업 확대를 통해 판매량 증가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확대를 통해 팰리세이드, 싼타페, 투싼, 코나, 베뉴 등으로 라인업을 강화하며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 픽업트럭 ‘싼타 크루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호세 무뇨스 글로벌 COO(최고운영책임자) 겸 북미권역본부장과 마크 델 로소 제네시스 북미담당 CEO를 만나 향후 전략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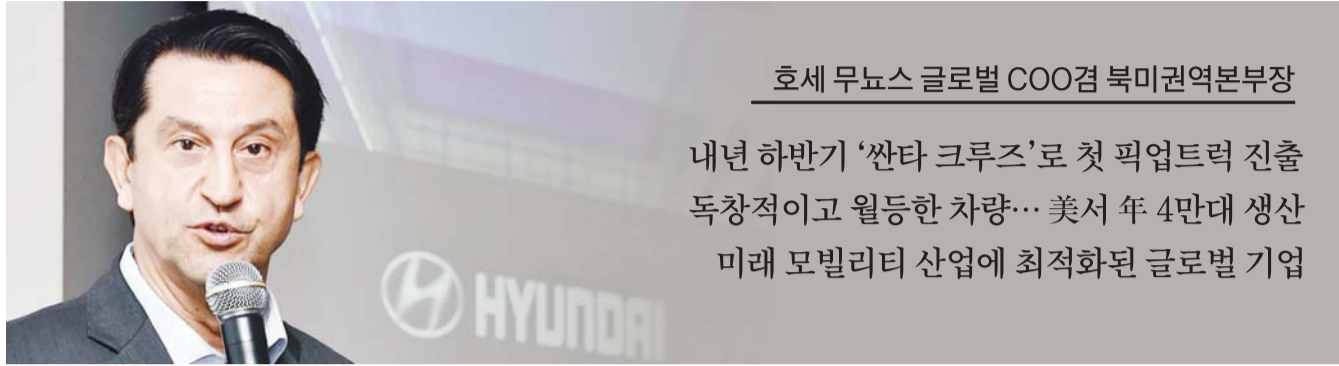
### ◆현대차 현지화 전략 강화

현대차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화 ▲첨단 기술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호세 무뇨스 COO는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운틴밸리 HMA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 몇년간 SUV 신차를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며 “지난해 미국 판매 성장을 이끈 데는 제품 라인업 변화와 고객 서비스 향상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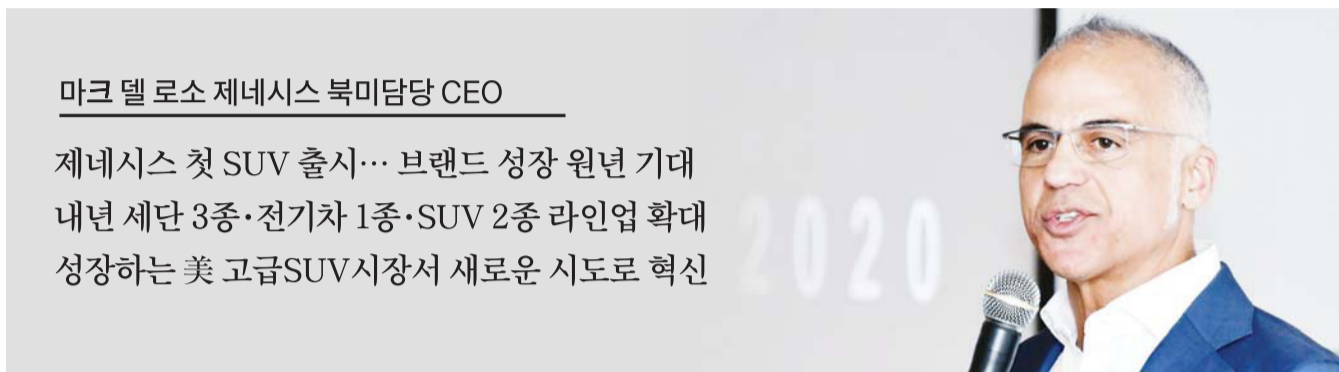
현대차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2021년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싼타 크루즈’로 본격 진출한다. 미국은 픽업트럭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인 반면, 강한 트럭만이 살아남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완벽함을 갖추지 못하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무뇨스 COO는 “싼타 크루즈는 2021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딜러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앨라배마 공장에서 연간 4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다만 싼타 크루즈는 단순한 픽업



호세 무뇨스 글로벌 COO 겸 북미권역본부장

내년 하반기 ‘싼타 크루즈’로 첫 픽업트럭 진출 독창적이고 월등한 차량… 美서 年 4만대 생산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최적화된 글로벌 기업



마크 델 로소 제네시스 북미담당 CEO

제네시스 첫 SUV 출시… 브랜드 성장 원년 기대 내년 세단 3종·전기차 1종·SUV 2종 라인업 확대 성장하는 美 고급SUV시장서 새로운 시도로 혁신

트럭이 아니며 포드나 GM 등과 같은 미국 현지 업체의 전통적인 픽업트럭과 경쟁차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단순히 견인력, 차량중량 등급이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사양을 제공하는 도심형 크로스오버 트럭으로 새로운 세그먼트의 정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크기를 앞세운 경쟁력이 아닌, 친절함으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차의 텔루라이드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가 첨단 기술과 디자인,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현대차는 2021년 생산을 앞둔 픽업트럭을 ‘SUT’라는 단어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포츠유틸리티트럭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뇨스 COO는 “물건을 던져놓을 수 있는 개방형 적재함에, 운전자와 탑승객을 위한 실내 공간을 동시에 갖춘 도시적이고 젊은 크로스오버 트럭”이라며 “싼타 크루즈는 그 자체로 독창적이고 월등할 것

이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2000년대 중반 포드 스포츠 트럭과 쉐보레 아발란체 등이 SUT를 지향하며 등장했지만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단종된 바 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반전을 이끌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무뇨스 COO는 지난해 출시된 미국에서 월 평균 5000대 가량 판매되고 있는 팰리세이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차”라며 공급 측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팰리세이드는 현대차가 성공적으로 론칭한 신차 중 하나로,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팰리세이드의 높은 인기로 인해 현재 공급 대수가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생산을 늘린다면) 더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뇨스 COO는 “팰리세이드가 미국 미드사이즈 SUV 세그먼트에서 4.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판매 가격이 높은 편임에도 많은 고객들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은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2025년

판매량 목표치를 100만대(제네시스 포함)로 잡는 등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했다.

무뇨스 COO는 닛산의 전사성과총괄(CPO) 출신으로 지난해 4월 현대차에 합류해 이달로 9개월째를 맞았다. 그는 지난 9개월간의 소회에 대해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글로벌 통합 기업”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이나 새롭게 만들어진 각 권역 간의 협력과 팀워크가 매우 잘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제시한 비전인 ‘스카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을 언급하며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글로벌 통합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 ◆“제네시스 젊은 신생 브랜드로 혁신”

지난 10월 제네시스 북미담당 CEO로 합류한 마크 델 로소 CEO는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이 같은 전략을 반복하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있지만 제네시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된 것처럼 흥분되고 기분 좋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네시스는 3개 라인업(G70·G80·G90)으로 지난해 2만1333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2배(105.9%)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제네시스의 첫 SUV인 ‘GV80’을 선보이며 북미 시장 내 제네시스 브랜드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델 로소 CEO는 “올해 여름 출시를 앞두고 있는 GV80은 디자인 측면에서 멋진 차다. 다른 고급 브랜드에 뒤지지 않은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높은 기대감을 보이는 것은 미국 고급 자동차 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고급 세단 시장은 침체되고 있지만 고급 SUV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고급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전체 시장의 59%가 SUV였다. 고급 SUV 시장은 2025년까지 27% 성장해 전체 고급 자동차 시장 중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델 로소 CEO는 “고급 SUV 시장은 초경쟁적인 상황”이라며 “미국 시장은 럭셔리 SUV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다”고 말했다.

또 델 로소 CEO는 미국 시장에서의 방향성에 대해 “제네시스는 럭셔리카를 찾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네시스는 고급 자동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품질, 신뢰성 등 고려사항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제품에 녹아든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 ‘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강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V80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라인업 확대를 통해 판매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델 로소 CEO는 2021년 세단 3종, SUV 2종, 전기차 1종을 선보인다. 그동안 단순한 제품 라인업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약점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또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 지점을 올해 연내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델 로소 CEO는 25년 이상 자동차 산업에 몸을 담으면서 그중 20년 이상을 벤츄리, 아우디, 렉서스 같은 고급 브랜드에 집중해온 전문가다.

특히 아우디 미국법인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재직 당시 77개월 연속 판매 증가의 기록을 세우며 연간 20만대 판매 목표를 계획보다 5년이나 앞서 달성했고, 벤츄리 미국법인에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딜러망을 정비하는 등 벤츄리의 미국 사업 전반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파운틴밸리(미국)·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사옥

## 삼전 담당 안진, 회계사 60명 채용… 100명 투입 예정

### 》1면 ‘세계 첫 감사인 지정제’서 계속

안진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감사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최근 60여명의 경력 회계사를 대거 채용했고, 삼성전자에만 100명 이상의 회계사를 투입하는 전담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삼일의 감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지만 안진은 “우리 실력으로 충분하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안진은 최근 회계보수도 조율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감사인인 삼일에 44억원의 감사비를 지불했다. 이번 안진과 새로운 계약에서는 미리 감사비를 책정하지 않고, 감사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감사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사비도 기존 44억원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감독당국도 총동원 ‘대비’

금융사의 감사인도 다수 바뀌었다. KB금융지주와 삼성생명도 삼일에서 삼정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에서 삼일, 우리금융지주는 안진에서 삼일로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금융사 감사를 새로 맡게 된 회계법

인 역시 준비에 분주하다. 지주사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등 줄줄이 달려오는 계열사의 회계를 모두 감사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2022년부터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하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키스·K-ICS) 도입을 앞두고 있어 기업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주기적 지정 감사 도입 첫해다. 감독 당국은 기업과 감사인 또는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총동을 조율할 수 있는 대책 마

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회계처리에 대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제3자 주관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주요 협의 내용을 회사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영지 기자 sonyj301@

# 1인당 매출 9억·기계장비 3.6억 보유... 특허 年 2배씩 증가

## 데이터로 보는 10대 기업

### (4)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편중에 한때 실적 '흔들' 투자 꾸준히 지속, 미래경쟁력 강화 사업구조 다분화로 불안정성 완화

SK하이닉스가 다시 비상(飛上)을 시작했다. 지난해 극심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반등을 시작한 것.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 내실을 쌓은 덕분이다. 단, 시황에 따라 실적 편차가 크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37.99%에 불과했다. 2018년(45.65%)과 2017년(82.56%) 2년간 급성장 직후 급격하게 떨어진 수치다.

총자산증가율도 -5.97%로 후퇴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천 M16 기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SK

다. 2018년(27.16%)과 2017년(26.32%)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특히 순이익증가율은 무려 -85.51% 폭락했다. 2018년에는 65.71%, 2017년에는 515.18%를 기록했던 그 지표다.

1인당 매출액도 8억9399만원으로 전년(15억6309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2017년(12억6955만원)보다도 30% 가까이 떨어졌다. 그 밖에 여

러 실적 지표도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해 반도체 시장 침체 영향을 짐작케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16년에도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총자산증가율이 -0.37%로 저조했고, 매출액 증가율도 -20.36%로 떨어졌다. 순이익증가율도 -65.68%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주기적으로 널뛰는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사업 구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사업 비중은 D램이 77%, 낸드플래시가 20%다. 메모리 반도체는 3~5년마다 '슈퍼 사이클'과 불황을 반복해왔으며, SK하이닉스도 이에 따라 큰 실적 변동을 겪었다.

단, 앞으로는 이런 불안정성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꾸준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더 강화한 데다, 사업 구조도 다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 중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 종업원 1인당 '기계장비 비율'을 3억5930만원으로 높였다. 전년(2억7501만원) 대비 30.6%나 늘린 결과다. 기계장비비율은 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종업원 1인당 보유 수준을 나타낸다. 2016년(2억605만원)에 전년보다 21.4% 높은 것보다 오히려 더 힘을 쏟았다.

생산성도 높아졌다.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가 21억863만원으로 전년(19억4431만원)보다 8.45% 올랐다. 2016년(12억9493만원)에 전년보다 4.19% 상승한 것보다 2배나 효율을 높인 셈이다.

개발비도 꾸준히 늘리는 추세다. 2015년 1조9892억원에서 2018년 2조9014억원으로 늘렸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만 전년보다 11.60% 많은 2조3281억원을 투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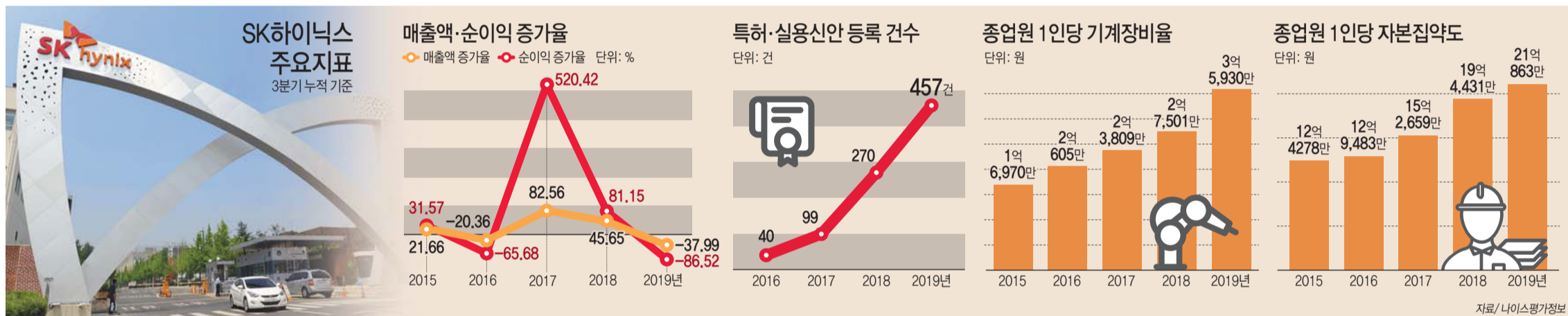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건수

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이다. 2016년 40건이었던 것이 2017년 99건, 2018년 270건, 2019년 457건으로 매년 2배 안팎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2일 기준 벌써 2건을 새로 등록했다.

신용도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18년 4월 AA-에서 AA0로 승급한 후 지난해에도 같은 등급을 지켜냈다.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이찌 성장도 SK하이닉스 사업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다. 시스템이찌는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맡아 2017년 창업한 회사로, 2018년 당기순이익 606억4912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 중이다. 지난 10일에도 역대 최고가인 9만9000원을 기록했고, 추후 11만원에서 13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가전 중심서 모바일·모빌리티로 영역 확장

### >> 1면 '일상에 들어온...'서 계속

관람객들은 주문, 음식조리, 서빙, 설거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공간에서 AI 경험을 보여주는 커넥티드 카, 아바타에 옷을 입혀보며 가상 피팅을 경험할 수 있는 쌍구핏 콜렉션 등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 '엘리먼트 AI'와 손잡고 '인공지능 발전 단계'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구글은 자사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구글 어시스턴트가 적용된 기업들의 제품 100여 개를 전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연구소 스타랩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네온도 큰 주목을 받았다.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고개를 가웃거리는 모습까지 모두 실제 인간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때문에 향후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등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30분 간격으로 진행된 시연에는 매시간마다 네온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 ◆업종 간 연계 허물어진 모빌리티

미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모빌리티도 주목받았다. 특히 모빌리티 기업뿐 아니라 IT 기업이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며 경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소니는 프로토타입의 전기차 '비전-S'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공개된 차량은 소니의 이미지 및 센싱 기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탑재해 전례 없는 수준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총 33개 센서가 차량 360도 주변을 감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차량 안전을 보장한다.

요시다 쉐이치로 소니 사장 겸 CEO는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이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면 앞으로의 메가트렌드는 모빌리티가 될 것"이라며 소니의 기술력이 집약된 차량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환경을 선보였다.

### ◆중국의 모방 정신 그대로

중국 업체도 압도적인 제품들을 대거 쏟아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타 업체 제품을 모방한 수준에 그쳤다.

그중 하이센스, TCL, 창흥, 스카이워스 등 중국 업체 4곳이 삼성전자 세로형 TV '더 세로'를 따라한 제품을 전시했다. 하이센스와 창흥은 회전이 자유로운 모습까지 그대로 구현했다. TCL과 스카이워스는 미술 작품을 화면에 띄워 작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삼성의 '더 프레임'과 유사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엔 가전을 중심으로 전시됐던 CES가 점차 모바일, 모빌리티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uni2514@

## 바코드 인식하면 2~3초만에 물건 '척척'

(로봇크레인)

### >> 1면 '온라인 주문제품...'서 계속

물건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3초로 매우 빨랐다. 쇼핑백에 담긴 제품을 픽업하자 바스켓은 이마트 계산대 위로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로봇 크레인은 일이 없을 때에도 계속 바쁘게 상하좌우로 움직였는데, 이는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시스템 앞에 한동안 머물게 했다.

이 시스템에 제품이 배송되는 것은 픽업 4시간 전에 이뤄지며, 야채·과일 등 식품의 신선도를 위해 내부의 시원하게 유지된다. 청계천점에서 외부로 나가는 SSG닷컴 물품 준비를 맡는 직원들이 청계천점 픽업 상품을 함께 준비해 바스켓에 싣는다.

픽셀 시스템은 지난 한 달 간 직원들이 상주한 가운데 시범 서비스를 거쳐 운영돼 이틀 간 오배송 등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로봇인가' 묻고 '신기하다'는 고객들의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특히 오픈 1주일간 선착순 50명에게 맞은 편에 임대 매장으로 같이 오픈된 달콤커피의 로봇카페 '비트'의 무료 커피 쿠폰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였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소수의 고객들에게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10일 이마트 최초로 청계천점에 오픈한 SSG닷컴이 운영하는 '픽셀(PIXEL)' 온·오프라인 통합 픽업 시스템. SSG닷컴에서 주문한 상품을 키오스크에 바코드를 입력하면 크레인 로봇이 배달해준다. /채윤정 기자



로봇 크레인이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키오스크 쪽 출구로 배송하고 있다.

기 돼 당일 픽업이 불가능했다. 아직은 오전 중 주문한 제품 정도만 픽업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주문량이 많은 경우, 바스켓 2개에 나눠 배송이 돼 자칫하면 1개만 픽업하고, 두번째 바스켓 제품은 놓칠 수 있어 픽업시 전 품목이 픽업됐는지 잘 확인해야 했다.

SSG닷컴은 앞으로 픽셀 시스템을 다른 이마트 매장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계천점 이마트 매장 지하 2층의 일부 공간에는 외부에서 안에 보이는 물류센터가 구축됐다.

특히 이마트 픽셀 시스템 맞은편에 설치된 '비트' 카페에서는 로봇이 컵을 잡아 커피머신에 놓아주고, 컵에 담긴 커피를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풍경이 연출돼 하이테크 매장의 이미지를 더해줬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AR·VR에 미디어... 구글 등과 脫통신 글로벌협력 '성과'



美 최대방송사와 '캐스트닷컴' 선배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 OTT, 광고 CES서 ATSC3.0 기반 멀티뷰 중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0'에서 글로벌 협력을 가속화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무선 사업에서 벗어나 가상·증강현실(VR·AR), 미디어 등 탈통신 행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SKT, 美 싱클레어와 합작회사로 방송 시장 공략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방송그룹과 합작회사를 필두로 미국 ATSC3.0(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 규격) 방송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텔레콤과 싱클레어는 최근 합작회사 '캐스트닷컴'을 출범했고, 이달 초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사무소를 열었다.

합작회사의 대표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싱클레어의 케빈 게이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SK텔레콤 박경모 박사가 맡는다.

싱클레어는 2019년 MLB, NBA, NHL 42개팀의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FSN(폭스스포츠네트워크)을 106억달러에 인수한 미국 콘텐츠 업계 강



루시 루티스하우저 싱클레어 CFO(왼쪽부터), 케빈 게이저 캐스트닷컴 대표 겸 COO, 이종민 SK텔레콤 테크노노베이션 그룹장, 김진중 SK텔레콤 벨류 그룹스 그룹장이 CES 전시장 SK부스에서 캐스트닷컴의 ATSC3.0 방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자다. SK텔레콤과 싱클레어 합작회사는 지난해 열린 'CES 2019'에서의 양사 협력 결실이다.

합작회사는 SK텔레콤의 통신 기술과 싱클레어의 방송 인프라를 결합해 미국 방송시장에서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 ▲초저지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인 맞춤형 광고 3대 사업 영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의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기술(TACO)과 가상 네트워크 기술(SONA)을 싱클레어 방송 시스템에 적용해 ATSC3.0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합작회사는 SK텔레콤의 모바일 고화질 영상 전송 기술(MMT)과 싱클레어가 보유한 뉴스, 스포츠 콘텐츠를 기

반으로 연내 초저지연 OTT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CES 2020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부스에 설치된 차량용 콕핏에서 미국 최초로 ATSC3.0 기반 멀티뷰 중계를 시연하며, 기술을 뽐내기도 했다.

싱클레어의 스포츠, 뉴스 채널이 한 화면에서 여러 앵글로 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민 SK텔레콤 테크노노베이션 그룹장은 "SKT-싱클레어 합작회사가 미국 ATSC3.0 방송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SK텔레콤의 미디어 사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VR 이어 AR까지...구글과 협력 나선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0에 참석한 하현희 부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전시장에서 구글 주요 경영진을 만나고 있다. /LG유플러스

### LGU+

LG유플러스는 이번 CES 기간 동안 가상현실(VR)에 이어 증강현실(AR) 분야에서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자 구글과 손을 잡았다. 양사는 AR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는 AR콘텐츠 펀드를 즉시 조성하고, AR콘텐츠의 제작 및 글로벌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공동 제작한 3D AR 콘텐츠를 유플러스 고객에게 한국에서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구글은 '구글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전 세계의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에 무관하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AR콘텐츠와 구글과 협력하는 독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감형 콘텐츠 관련 생태계



증강현실 강화 위해 구글과 맞손 독점 콘텐츠 키워 AR 생태계 확장 5G 혁신형 콘텐츠에 5년간 2.6조 투입

확장에 나선다.

LG유플러스와 구글의 협력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VR전용 플랫폼인 'U+VR'와 구글의 유튜브에 K콘텐츠를 독점 공급해오고 있다. 이번 제휴는 VR콘텐츠 분야의 경험을 AR 분야로 확장하고, 구글과 공동 제작한 AR콘텐츠의 글로벌 공급에 나서 5G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LG유플러스는 AR, VR와 같은 5G 혁신형 콘텐츠 제작·수급에 5년간 2조 6000억원을 투입하며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간 관련 분야에 집행한 연평균 투자액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지난해 360도 입체 촬영 제작 기술을 보유한 미국 8i와 독점 제휴를 통해 AR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

LG유플러스 측은 "5G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부터 관련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며 "AR, VR 등 5G 콘텐츠 육성과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CES 혁신상, 최고 제품상 대거 수상... IT강국 위상 다진 삼성·LG



9년 연속 혁신상... 어워드 198개 석권 매체 "뛰어난 밝기·명암비 갖춰" 찬사 'Q-심포니', CTA 수여 '최고 혁신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CES(소비자가전쇼)에서도 최고 제품상·혁신상 등을 휩쓸며 'IT 강국'의 면모를 전세계에 과시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CES 혁신상과 최고 제품상 등을 대거 수상했다.

삼성전자 제품들은 'CES 혁신상' 46개를 포함해 현장 어워드 198개를 수상했다.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TV 부문에서는 QLED 8K,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The Wall), 라이프스타일 TV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QLED TV는 테크레이더, AVS 포럼, 트러스트티드 리뷰, 포켓리브, 지디넷 등 매체가 선정한 'CES 최고 제품'으로도 선정됐다. 테크레이더는 "2020년 최고의 기술에 단 하나의 제품을 올린다면 삼성의 QLED 8K를 꼽겠다"며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베젤과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부스에서 관람객이 QLED 8K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뛰어난 밝기·명암비까지 갖췄다"고 호평했다.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두 기기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주는 'Q-심포니' 기능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올해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인 '더 세로'도 주목받았다. 미국의 주요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해 IT 전문매체 리뷰드닷컴, 지디넷, 테크레이더 등이 더 세로를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 '더 월'은 지디넷의 'CES 최고의 기술', 포켓리브의 'CES 최고의 제품' 등에 이름을 올렸다. QLED TV, 더 세로, 더 월 3개 제품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씨넷이 선정한 'CES 최고의 제품'에도 나란히 올랐다.



LG전자 올레드 TV가 10일(현지시간) 'CES 2020'에서 TV 부문 'CES 최고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5년 연속 CTA가 선정하는 혁신상을 받았으며, 이번 CES에서 새롭게 선보인 '큐브 냉장고' 역시 호평을 받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큐브 냉장고를 'CES에서 만난 최고의 신제품'과 '최고의 생활가전'으로 동시에 선정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크롬북'과 '갤럭시 S10 라이트', '갤럭시 노트10 라이트'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갤럭시 크롬북은 "지금까지 만든 크롬북 중 가장 멋진 크롬북(IT매체 기즈모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씨넷의 'CES 최고의 노트북', BGR과 엔가젯의 'CES 최고의 제품' 등 약 20여개의 현장 어워드를 석권했다.

갤럭시노트10 라이트는 '최고의 CES 제품', '최고의 모바일' 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디지털트렌드의 '최고의 CES 기술', 리뷰드닷컴의 'CES 에디터스 초이스' 등도 받았다.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5G와 갤럭시 S10 5G 제품 역시 CES 최고 혁신상 등을 받았다. LG전자도 이번 'CES 2020'에서 TV 제품을 중심으로 최고 혁신상 등을 대거 수상했다.

LG전자 제품들은 7~10일(현지시간) 열린 CES에서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는 'CES 최고 혁신상'과 'CES 혁신상' 46개를 포함, 총 119개의 어워드를 받았다. 특히 절반 이상인 69개는 TV 제품이 차지해 TV 기술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LG전자는 밝혔다.



최고혁신상 포함... 총 119개 어워드 TV 제품, 절반 이상인 69개 선정 '리얼 8K' 화질·디자인 기술 호평

LG 올레드 TV(모델명 CX)는 CES 공식 어워드 파트너인 엔가젯으로부터 TV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LG 올레드 TV가 CES 최고 TV로 선정된 것은 2015년 이후 6년 연속이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리얼 8K'를 앞세운 TV 제품들을 대거 선보이며 화질·디자인 기술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미국 IT매체 탐스가이드는 LG전자의 '벽밀착 디자인'에 대해 "LG 올레드 TV가 더 세련되고 얇게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생활가전 제품들도 다수 매체들로부터 어워드를 받았다. 인공지능 DD모터를 탑재한 'LG 트윈워시' 건조기,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식물재배기, 얼음제조기 'LG 인스타뷰 크래프트 아이스' 등이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화면과 휴대성을 겸비한 'LG 그램 17' 노트북 등 IT 제품들도 총 23개의 어워드를 받으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순·구서윤 기자 yuni2514@

# 쾌속 질주하는 친환경 SUV 10대 중 1대는 전기·수소차

지난해 친환경 SUV 4.9만대 판매 전년 비 33.6% 증가... '역대 최대'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 1위 올라 신차 확대에 올해 10% 돌파 전망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판매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대 중 1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내수 시장에서 팔린 국산 SUV는 57만5754대 가운데 8.5%(4만8769대)가 친환경차가 차지했다. 친환경 SUV 판매는 전년(3만6494대)보다 33.6% 증가하며 판매량과 판매 비중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SUV 친환경 모델은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로 2만 247대였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1만3587대로 2위에 올랐고, 기아차 니로 EV(5999대), 현대차 넥쏘(4194대),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3171대), 기아차 쏘울 EV(1571대) 순이었다.



▲기아차 니로 EV

업체별로는 기아차가 2만7817대, 현대차가 2만952대 판매했다. 기아차는 친환경 SUV 판매 비중은 전체 SUV 판매의 17.2%에 달했다. 현대차 친환경 SUV 판매 비중이 8.8%를 기록했다.

업계는 올해 신차가 늘면서 친환경 SUV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는 1분기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내놓고, 현대차도 투싼과 싼타페 신형 모델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도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최근 미래차 보급 사업 계획에서 올해 9만4430대의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만1155대에 2배 가까운 규모로, SUV를 포함한 전기 승용차는 6만5000대, 수소 승용차는 1만1000대 보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SUV 강세 흐름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친환경 SUV 판매 실적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변화하는 북미서 수출 도약”

권평오 코트라 사장

북미 무역확대 전략회의서 포부



권평오 코트라 사장이 지난 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에서 북미지역 무역관장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10년에 걸맞은 진일보한 수출지원 전략을 마련하자고 발언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 스물딜 후 경기 반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움직임을 활용해 변화하는 북미시장에서 우리 수출 재도약을 선도해나가겠다.”

코트라(KOTRA)가 지난 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북미지역 무역관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권평오 사장은 새로운 10년에 걸맞은 진일보한 수출지원 전략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무역분쟁 장기화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작년에도 우리의 북미 수출은 플러스를 기록하며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북미 수출은 직전년 대비 0.5% 증가한 774.6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북미 시장은 고용·소비 호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대선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지지율 변화, 보호무역주의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변수도 존재한다.

코트라는 북미시장변화를 맞이하고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4대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무역분쟁·GVC 재편 대응 ▲신(新)산업 수출 지원 ▲소비재 수출 고급화 ▲투자 유치·진출 및 스타트업 지원이 그것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과 중국제품

품질 불만족으로 중국산을 상대로 소비심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코트라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디트로이트), 기계장비(시카고), 에너지기자재(달라스) 등 무역관별 핵심 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다. 수요분석을 비롯 사업초청, 매칭상담, 토포인트 성역 등 단계별 지원체제도 구축해 우리 기업의 GVC 진입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북미시장에서는 올해 세계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4차산업혁명 심화, 새로운 소비층 부상이 모두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 한해 수출 구조 개선과 부단한 혁신으로 신시장·신산업·신소비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활발히 비즈니스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해외 우리 문화재 올레드에 담았다

英 국립도서관에 있는 ‘진찬의궤’ AR 등 적용... 문화원 전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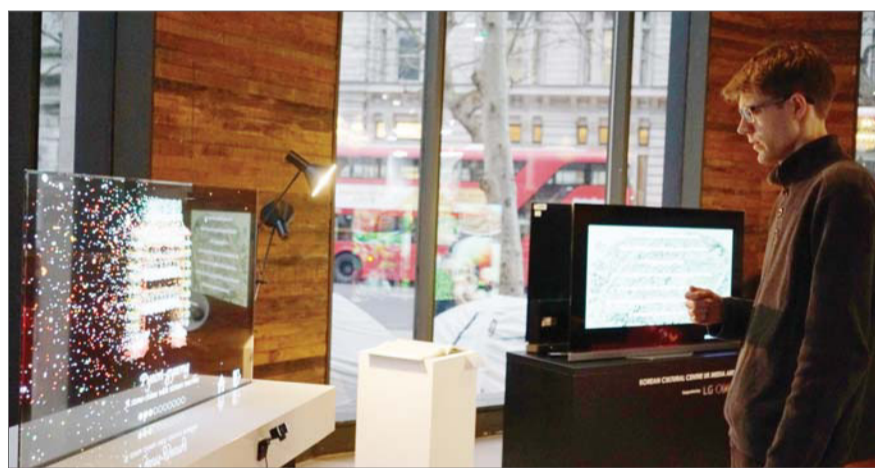
LG전자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올레드에 담았다.

LG전자는 9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미디어쇼케이스’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사진표리진찬의궤는 조선 후기 혜경궁의 관례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인 진표리와 진찬을 채색화로 기록한 의궤다. 병인양요로 프랑스로 반출돼 현재 영국 국립도서관에 있다.

쇼케이스는 기사진표리진찬의궤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LG전자와 영국국립도서관, 중앙대학교 이보아 교수 연구팀 등이 협업했다.

LG전자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와 시그니처 올레드 TV를 전시에 활용했



LG전자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미디어 쇼케이스.

/LG전자

다.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제스처 인식 기술도 적용했다.

AR 기술은 관람객 제스처에 따라 재생되는 화면을 바꿔 관람할 수 있는 기능이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는데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해준다. 또 ‘소리 시각화’ 기법으로 이미지가 관람

객 손동작을 따라간다.

LG전자는 관람객이 영상 콘텐츠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쇼케이스를 즐기는 동시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딜라이브, 복합미디어기업 ‘올인원’ 도약 출사표

인프라 확충 등 올해 200억 투자

딜라이브가 2020년을 맞아 ‘올인원(ALL-IN-ONE)’ 복합미디어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유료방송 시장재편이 본격화 되는 2020년에 딜라이브만의 무기로 치열한 경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딜라이브는 국내 최초로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생활편의 서비스를 딜라이브를 통해 한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전략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올해부터 신규가입자유치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송-인터넷-VOD-OTT-홈서비스’ 5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 이용자들이 동시에 이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딜라이브는 영업, 마케팅,

기술 등 딜라이브의 모든 조직을 1부분, 3본부, 8실 체제로 편성했다. 신성장전략본부도 신설해 기존 홈서비스와 OTT의 조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기획한다. 아울러 16개의 지사를 지역을 기반으로 10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딜라이브는 올해 말까지 셋톱박스 교체와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체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 5G 완전 무제한... 20대 위한 ‘Y슈퍼플랜’

KT 20대 선호 혜택 더해 해외 데이터 로밍 무제한

KT가 업계 최초로 20대들을 위한 5G 요금제 ‘Y슈퍼플랜’을 선보이며, 젊은 세대 공략에 나선다.

KT는 12월 만 29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Y슈퍼플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Y슈퍼플랜’은 지난 4월 5G 상용화와 함께 선보인 5G 슈퍼플랜의 전 구간 속도제어(QoS) 없는 국내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대가 선호하는 혜택을 더했다.

Y슈퍼플랜은 데이터 로밍 혜택을 강화해 해외여행 수요가 큰 20대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였다. Y슈퍼플랜은 베이직(월정액 8만원)과 스페셜(월정액 10만원) 요금제 2종이다. 전세계 185개국에서도 데이터 로밍을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1Mbps는 검색과 구글맵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속도다.

스마트 기기 1회선 요금할인 혜택도 더했다. Y슈퍼플랜 스페셜 고객은 1만 1000원 상당의 스마트기기 전용 요금제인 ‘데이터 투게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베이직 고객은 스마트 기기 1회선을 50%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

또 Y슈퍼플랜 스페셜은 월 최대 9만 2000원 상당(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인 무료)의 VVIP 멤버십과 4500원 상당의 단말 분실파손 보험 ‘KT슈퍼안심’을 무료로(멤버십 포인트 차감) 이용할 수 있다.

선택약정 25% 할인과 프리미엄 가족결합 25% 할인을 함께 받을 경우, ‘Y슈퍼플랜’ 2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베이직은 월 4만원, 스페셜은 월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KT는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20대를 위한 ‘Y슬림’ 요금제도 선보였다. Y슬림은 기존 ‘5G 슬림’과 동일하게 월정액 5만5000원에 매월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1Mbps 속도제어)를 제공하며, 최대 100Kbps 속도의 데이터 로밍을 추가로 제공한다. 100Kbps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속도다. Y슈퍼플랜과 Y슬림은 이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KT는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Y프렌즈 프로모션 시즌2’를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Y슈퍼플랜 및 슈퍼플랜 요금제에 가입한 만 29세 이하 고객 다섯 명이 Y박스 애플리케이션 내 ‘Y프렌즈’에 모이면 무신사 스페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의 꿈과 열정을  
키워드립니다.

“청년취업의 꿈이  
꿈에 끝나지 않도록”

# 신한은행이 「취업은행」이 되어드립니다

신한은행의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 플랫폼-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 취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신한의 따뜻한 금융이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 취업교육

유망 스타트업 CEO의 노하우 공유와 직무역량교육 전문강사의 1:1 맞춤형 취업준비지원 및 유망 스타트업과 연계한 맞춤형 면접까지 지원하는 '두드림매치메이커스'를 운영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30명이 교육이수를 통해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고객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디지털 교보 변화 선도

신창재 회장 전사경영전략회의

**KYOBO** 교보생명

“살아남으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유연성·수평적 태도·소통 강조  
부서 아닌 전 임직원 주체로 혁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1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 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금리 장기화, 카카오·토스 등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등 보험업계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한 후 “이제



지난 10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자”며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교보생명

막연히 성장을 논하기보다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업현장 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해 경영성과를 짚어보고 올해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회장은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

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올해 경영방침을 ‘생존을 넘어 디지털 교보로 가자’로 정했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보험업계의 경영환경이 어려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객가치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MAGA(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애플)는 하이테크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은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기업이라고 말한다”며 “이처럼 사업(Business)의 기본은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니즈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잘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타사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디지털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디지털을 활용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한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업무 프로세스도 고객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오너 CEO로서 생명보험사의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철학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부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全) 임직원이 주체가 돼 디지털 혁신의 기획(Plan)과 실행(Do)을 모두 이끌어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실무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모두 갖춘 ‘양손잡이’ 인재가 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잘하기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겸손과 정직, ‘유연성’, ‘수평적 태도’, ‘경청과 공감’, ‘소통’과 같은 덕목을 잘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이대훈, 전국 누빈다 현장 소통경영 추진

NH농협은행은 이대훈 행장이 지난 10일 서울·강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과의 소통경영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과 강원권역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서울영업본부에서 진행된 현장경영에서 이 행장은 지난해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기 사업추진 태세 확립 ▲건설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은행 만들기 ▲신성장동력으로 디지털금융선도·글로벌 사업 확대·고객 자산화 전문성 제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생명

## 당뇨·디스크 등 보장 건강보험 3종 출시

NH농협생명은 당뇨병 진단과 합병증을 한 번에 보장하는 ‘당뇨케어NH건강보험(갱·무)’, 당뇨병 진단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당뇨케어NH건강보험(당뇨병진단자·갱·무)’, 디스크와 관절염을 보장하는 ‘허리업(UP)NH척추보험(무)’ 등 건강보험 3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당뇨케어NH건강보험(갱·무)은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주계약만으로 당뇨병(당화혈색소 9.0% 이상) 진단이 나오면 1000만원, 당뇨병 진단 확정 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진단시 각 2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특약을 통해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실명진단 확정, 족부절단수술시 각 2000만원을 지급한다. 당뇨 관련 주요 질환으로 인한 입원급여금, 수술자금 등도 보장한다. /김희주 기자

## “최고의 가치는 신뢰… 7대 경영전략으로 그룹 리빌딩”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경영전략회의

‘동행경영 선포식’ 진행  
UN책임은행 원칙 가입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신뢰”라며 “진심진력(眞心盡力)의 마음가짐으로 고객, 직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전 임직원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1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10일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그룹사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리금융그룹은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지주사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이라는 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션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손 회장은 기념사에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룹체제 2년차’를 당부함과 동시에 ‘고객 신뢰 1등 금융그룹’의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경영전략회의에서 ‘동행경영(同行經營) 선포식’을 진행하고 그룹사 모든 임직원들이 고객의 든

든한 동반자가 되자는 취지의 결의 다짐 시간을 가졌다. 특히, UN책임은행 원칙에 가입하는 서명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7대 경영전략으로 ▲고객중심 영업 혁신 ▲리스크

우리금융그룹 7대 경영전략

1. 고객중심 영업 혁신
2. 리스크관리·내부통제 혁신
3. 지속성장 동력 강화
4.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5. 디지털 혁신 선도
6. 글로벌 사업 레벨업
7. 우리 투게더 시너지

크관리·내부통제 혁신 ▲지속성장 동력 강화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디지털 혁신 선도 ▲글로벌 사업 레벨업(Level-up) ▲우리 투게더(Woori Together) 시너지 확대를 제시하고, 경기 하락 속에서도 그룹 리빌딩(Rebuilding)을 완성할 향후 2~3년이 우리금융그룹의 승부처라며 중장기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임기만료 앞둔 저축은행 CEO들… 금융권 “대부분 연임 할 것”

지난 해 저축은행 실적 고공행진  
신한·KB 연임, 웰컴銀 연임 확실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가운데 임기 교체 기간을 맞이해 연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 대표들이 지난해 연임을 확정지었지만 올 상반기 내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도 여럿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저축은행의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만큼 현재 대표들이 올해에도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며 연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영표 신한저축은행장과 신홍섭 KB저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정진문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

축은행 사장의 연임이 확정된 데 이어 오 3월 임진구·정진문 SBI저축은행 공동대표와 김대웅 웰컴저축은행대표, 윤병목 JT천애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다.

우선 신한, KB저축은행은 이미 연임을 확정했다.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신한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분기순이익이 189억원, KB저축은행은 103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상승세를 매 분기 이어갔다.

임진구·정진문 SBI저축은행 공동대표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지난해 SBI는 투자은행(IB)을 담당하

는 임진구 대표와 리테일을 맡은 정진문 대표의 시너지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웰컴저축은행의 김대웅 대표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업계 최초로 풀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순이익으로는 업계 2위까지 올려놓은 김 대표 또한 올해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JT천애저축은행의 윤병목 대표도 지난해 경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3분기 말까지 대손충당금을 줄이는 동시에 이자수익을 끌어올리며 236억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

오는 3월 임기인 하나저축은행 오화경 대표도 연임 개연성이 높다. 2019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65억원으로 전년 동기(40억원) 대비 62%나 급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친환경 플랜트-신개념 주거-스마트건설로 '행복경영'

SK 건설, 飛上 2020 전략



참여형 경영 위해 행복위원회 신설  
스마트 컨스트럭션 적극도입 예정  
3월 부평 부개서초교 북측지역 등  
올 재개발 아파트 7363가구 분양



안재현 SK건설 사장



SK건설의 화공플랜트.

탕부문장과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글로벌Biz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해외통'으로 알려진 안재현 사장의 능력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취임 후 실적과 재무구조 약화로 고민하던 안 사장이 해외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았다는 평이다. 특히, 유럽에서의 수주가 큰 성과로 꼽힌다. SK건설은 서유럽 플랜트시장에 기본설계(FEED)분야로 진입했다. SK건설은 작년 6월 영국 런던교통공사가 발주한 실버타운 터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같은 달 벨기에에서 PDH 플랜트를 수주했다.

SK건설은 '행복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통해 친환경·도시화 사업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개념 주거상품을 선보이고 스마트 건설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SK건설은 올해를 '행복경영의 원년'으로 내세웠다. '비즈니스 모델(BM)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해'로 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경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경제적 가치(EV) 및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하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경영' 원년...참여형 경영 실천  
SK건설은 올해 친환경 및 도시화 사업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연료전지, 친환경 플랜트 및 발전, 신개념의 주거상품 등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화·표준화·모듈화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으로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관련 비전도 제시했다. SK건설은 자기 완결형 조직인 스워드 조직을 확대한다. 스워드 조직은 경제적 가치(EV)와 사회적 가치(SV) 창출이 가능

하도록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데 집중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조직 변화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성원 참여형'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행복위원회를 신설해 최고경영자(CEO)와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그 내용은 실제 회사 경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안 사장은 "올해는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해 보다 깊게 접근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복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실적호조...올 7363가구 분양

SK건설은 지난해 2018년 실적악화를 딛고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692억원

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2017년 영업이익(2023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7년 555억원, 2018년 694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 13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분기별 평균 매출액은 1조8492억원으로 전년도 평균액 1조6089억원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2018년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이후 SK건설의 영업이익은 867억원으로 직전년도(2023억원)의 42%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와 함께 사고수습비용으로 기타충당부채 560억원을 계상했다.

SK건설은 작년에 해외에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SK건설에서 글로벌마케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진입에 대한 지도 돋보인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를 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1~3위 자리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순이다.

한편 SK건설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7363가구(일반분양 3299가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우선 오는 3월 부평 부개서초교 북측 지역에 총 1559가구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898가구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반도체株 근계일학... 삼성·SK 코스피 시총 30%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고가 기록  
반도체 업황 회복에 상승여력 충분

주식시장에서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도체 붐'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회사를 합친 시가총액은 421조원을 넘어섰으며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30% 돌파도 눈앞에 뒀다.

삼성전자는 연일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는 중이다. 지난 9일 5만8600원을 기록해 1975년 6월 11일 상장 이후 약 45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이튿날 1.54% 오른 5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를 연속으로 새 기록을 쓴 셈이다. 이전 최고가는 2017년 11월 1일이였다.

SK하이닉스도 10만원 고지를 눈앞에 뒀다. 10일 100원(-0.1%) 하락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9일 9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를 연속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외국인의 '삼성 사랑'... 올해 6268억원 매수

반도체주는 장밋빛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보다 30%에 가까운 이익 증가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하느냐"는 고민이 일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발표도 반도체 주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7조1000억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0조8006억원)과 비교하면 34.3%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6조5000억원) 수준보다 10% 이상을 웃돌았다. 예상치 못

(증권사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상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H투자증권	7만4000원	유안타증권	14만원
유안타증권	7만2000원	하이투자증권	13만원
현대차증권	7만1000원	NH투자증권	12만5000원
미래에셋대우	7만원	한국투자증권	12만원
하이투자증권	7만원	삼성증권	12만원
KB증권	7만원	현대차증권	12만원
대신증권	7만원	유진투자증권	12만원
키움증권	6만9000원	미래에셋대우	11만5000원
한국투자증권	6만8600원	대신증권	11만5000원
유진투자증권	6만7000원	KTB투자증권	11만원

했던 '깜짝실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서 비롯된 중동 리스크도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막진 못했다. 매수세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외국인은 지난 10일 장 마감까지 올해 6268억원치를 순매수했다. 7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900억원치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삼성전자도 269억원 순매수했다.

◆"어디까지 오를까"... 증권사 전망은

삼성전자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음에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이뤄지며 실적 반등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개선 폭이 가장 큰 섹터가 반도체일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눈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 D램과 낸드(NAND)의 평균판매단가(ASP)가 계속 올라갈 것이며 출하량도 양호할 것"이라며 "실적개선이 확실시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스마트폰 사업 부문

(IM)에서도 출하량 증가와 폴더폰 등 이익률이 높은 고가폰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평균치는 6만8000원 정도다. 현재 주가 대비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SK하이닉스의 예상 주가도 대폭 올라갔다. 미래에셋대우가 11만5000원, 하이투자증권이 13만원, 삼성증권이 12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두 회사 모두에 평균보다 높은 예상 주가를 책정했다. 삼성전자가 7만2000원, SK하이닉스가 14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올해 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부문 합산 매출액은 88조원으로 작년보다 1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8조원으로 92% 늘어나면서 강한 실적 모멘텀을 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희기자 alvin@

## 금감원에 라임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삼일회계법인 실사보고서 후  
손실액 확정돼야 조정 시작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분쟁조정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분쟁조정이 접수되는 대로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2호 ▲플루토 FI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이다.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 1조5587억원의 28.2%다.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국내선 애국펀드, 해외선 中펀드 강세

주간펀드동향  
국내주식형 4100억 유출

국내 주식시장은 중동발 리스크에 한 때 주가가 크게 출렁였지만 반도체주의 약진으로 하락폭을 만회했다. 국내펀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은 펀드가, 해외에서는 중국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1월 3일~9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0.72% 소폭 상승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1.37% 올랐다. 해당 기간 국내주식형펀드 자금은

4100억원 유출됐다. 한동안 지속하던 순유입세가 반전하면서 순자산은 72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80%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러시아가 2.62%로 수위를 기록했다. 또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중화권(1.79%), 친디아(1.54%) 등도 올랐다.

해외주식형펀드도 60억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다만 수익률 상승에 따라 순자산은 181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이른바 '애국펀드'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NH-아문디(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lassC'(3.18%)로 집계됐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

# “딥 웨이브 전략... 신한만의 ‘차별화된 고객경험’ 확산을”

〈신한카드가 주도하는 흐름〉

## 카드, 飛上 2020 전략

### ①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작년 3분기 누적순익 4111억  
전년 3955억 대비 3.9% 증가  
올 영역개선 5대 아젠다 제시  
3대 사업라인 강조 그룹 재편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올 신년사에서 ‘딥 웨이브’ 전략방향을 통해 신한카드가 주도하는 ‘흐름’과 차별된 ‘고객 경험’을 시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전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2020년 목표를 신한카드가 주도하는 흐름, ‘딥 웨이브’를 통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으로 잡았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신년사에서 “2020년에는 딥 웨이브 전략을 통해 신한카드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시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 영역서 독보적인 ‘일류’ 프로세스 구축

신한카드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111억원으로 2017년 동기(3955억원) 대비 3.9% 증가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성장을 가속화했고, 할부금융·리스를 비롯해 중개수수료 등 새로운 먹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신한카드는 미처 완수하지 못했

던 미진한 영역을 개선해 새로운 성장 역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는 ▲일류(一流) 신한·원신한(One Shinhan) ▲지불결제 시장 리더십 강화 ▲멀티 파이낸스 가속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차별화된 가치 창출 ▲핵심 역량 진화 등 5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첫번째 목표인 ‘일류신한’과 ‘원신한(One Shinhan)’은 데이터·상품·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흐름을 주도해 진정한 ‘일류’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신한만의 방식’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금융그룹이 되겠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비전과 궤를 같이 한다.

임 사장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2020년 상반기 사업전략회의 및 조직문화 리더십 연수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뉴비전(New Vision) 달성과 더불어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합 금융 플랫폼으로

지난해 신한카드는 단순 지불결제 사업자를 넘어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우선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그룹을 재편했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생활을 연결하는 페이먼트 플랫폼(Payment Platform) ▲최적의 금융상품과 원신한 가치를 제공하는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 ▲데이터와 디지털을 연결할 수익창

출과 R&D를 담당하는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그룹 등 3대 사업라인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신한카드는 이를 통해 지불결제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나 휴대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페이스페이(FacePay)’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래형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간편결제·바이오·IoT 등 미래 결제시장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멀티파이낸스(Multi Finance) 전략을 통해 금융의 영토도 넓힌다. 카드와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 생애 니즈별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오토금융 사업의 경우 전략적 상품운용을 통해 수익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사업에서도 현지 국가별 핵심사업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병행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다양한 산업군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복합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지출관리(PEM)·종합자산관리(PFM) 등 사업과 마이싱금·마이크레딩 등 혁신 금융사업을 본격화하고, 초기인화 마케팅과 연계한 ‘100% 디지털 카드생활’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 회원과 결제에 국한됐던 마케팅 대상을 소비생활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로 확장하고,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옴니(Omni) 채널의 마케팅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신한카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상생금융 실천

신한카드는 상생 중심 사업 전략과 친환경 사회공헌을 확대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역량을 강화하고, 상품의 완전판매·금융 사기예방·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 역량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신한카드는 지난 6일 국내 연예기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신한카드 JYP Fan’s EDM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외 가맹점에서 결제 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이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기부금은 전월 실적 조건 및 적립 한도 없이 월 단위로 적립되며, 매 분기마다 국제 비영리단체 메이크 어 위시(Make A Wish) 한국지부에 JYP 아티스트와 팬덤(Fandom, 가수·배우 등 유명인의 팬 층)의 이름으로 기부된다.

임 사장은 상반기 사업전략회의를 통해 “빠른 실행으로 시장을 선제하고, 지속하는 힘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직원과 소통하며 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연도별 비대면 예금 및 대출 잔액〉

(단위 : 조원, %)

구분		'16년말(A)	'17년말	'18년말	'19.9월(B)	증감(B-A)	
						금액	비율
예금	비대면	6.9(15.5*)	10.0(19.8)	14.0(23.4)	17.1(27.3)	10.2	146.6
	대 면	37.7(84.5*)	40.6(80.2)	45.7(76.6)	45.4(72.7)	7.7	20.7
	합 계	44.6(100)	50.6(100)	59.7(100)	62.5(100)	17.9	40.3
대출	비대면	6.1(14.1*)	7.6(14.8)	8.6(14.7)	10.6(17.1)	4.5	72.6
	대 면	37.3(85.9*)	43.4(85.2)	50.3(85.3)	51.5(82.9)	14.2	38.1
	합 계	43.4(100)	51.0(100)	58.9(100)	62.1(100)	18.7	43.0

\* 해당 연도 총 예금 및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융위원회

# 신한금융의 스타트업 상생 기발한 광고로 매출 15% ↑

## 조용병 회장, 아이디어 제시 12개 기업 광고 곳곳에 게시

광고시간을 빌려주는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지원이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스타트업의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가운데 인기 급상승 앱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석 달간 진행한 ‘기발한 광고 프로젝트’를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발한 광고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광고’의 준말이다. 신한금융이 혁신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광고 시간을 빌려주는 프로젝트다. 마케팅 홍보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은 조용병 회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지원진흥공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외부 전문가 자문기관과 함께 심사를 통해 최종 12개사의 광고를 선정했다. 광고들은 기발한 광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지난 12월부터 한 달간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미디어 및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졌다.

신한금융은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광



/신한금융

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제작 전문가들을 투입해 맞춤형 광고 카피 제작을 지원했으며, 각 기업에 가장 적합한 광고 노출 매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한 달 간 이어진 기발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 선정 기업들의 매출이 증대됐으며, 앱 다운로드 수도 급증했다. 유튜브 광고 조회수도 1800만회를 웃돌았으며, 기발한 광고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22만명을 넘어서는 등 스타트업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발한 광고 참여를 통해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약 15%의 매출성장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앱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해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 급상승 앱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안삼미 기자 smahn1@

# 여러 저축銀 상품, 非대면 한번으로 가입

금융위, 거래관행·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휴일 대출상환제도 확대

앞으로는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한 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도 앱, 우편, 팩스 등으로 확대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확대추세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면거래를 중심으로 운영된 관행·제도가 개선되는 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78개 저축은행에 신규 가입한 수는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1~3분기 32만7000건으로 급증했다. 비대면 수시입출금 계좌도 2016년 6000개에서 지난해 1~3분기 19만4000개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계좌개설 중 70.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과 대출도 증가했다. 지난해 9월말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과 대출액은 27조 7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대비 14조 7000억원 늘었다.

금융위는 우선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한다. 현재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출금계좌’ 등록을 위해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예금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어 20일 동안 다른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소비자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최소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단, 가입은 본인명의의 기존 타행계좌에서 송금한 입금만 허용하고, 예금 만기·해지 시에는 본인명의 계좌로만 출금되도록 해 대포통장 악용가

능성을 차단한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도 확대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생기더라도 상환하지 못해 휴일 기간에 발생한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체중인 소비자는 즉시 연체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휴일상환 절차 등은 상품 설명서·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절차도 개선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상품이다.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는 앱,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시작됐다! 진짜 청라가

청라의 가치는 국제업무단지! 선택의 기준은 큐브 시그니처 1015!

12.16 직격탄 비켜간 오피스텔,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



**3,400만원** 투자시  
**월 65만원** 임대수익

- 7호선 연장
- 커널웨이 호수공원 앞
- 10년 임대보장
- 중부세 無 2주택해당 無 전매제한 無
- 중도금 무이자

## 청라 국제업무단지 큐브 시그니처 1015 오피스텔, 상가 모집공고!

### 1. 분양신고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2019-청라관리과-분양신고-12 (2019년 12월 27일)]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9-청라관리과-신축허가-97]

### 2. 공급규모 (분양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 외 2필지)

공급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용적률
오피스텔, 근생 총 1,015실	6,084.90㎡	33,572.52㎡	50,387.77㎡	827.64%

### 3. 층별구성

층별	구성	용도
옥상층	휴식공간	입주민 휴식공간
지상 5~23층	오피스텔	오피스텔
지상 2~4층	업무지원시설	섹션오피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로비 &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하 6층	주차장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 4. 공급내용(오피스텔)

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비율
A	26.84㎡	14.64㎡	1.93㎡	22.24㎡	65.65㎡	4.82㎡
B	33.58㎡	17.42㎡	2.41㎡	27.83㎡	81.24㎡	6.03㎡
C	34.59㎡	18.60㎡	2.48㎡	28.67㎡	84.34㎡	6.21㎡
D	34.59㎡	18.60㎡	2.48㎡	28.67㎡	84.34㎡	6.21㎡

### 5.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인 및 가족 중 소득증명(근로 및 사업소득세 등의 납세증명원)이 가능한 자

### 6. 신청장소 및 방법

- 신청장소: 분양홍보관
- 신청방법: 신청접수한 고객에게 정상 접수완료 통보 후 희망호수 접수

### 7.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배우자포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1부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1부
- 대리인 신청시
  -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계약자의 인장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인장

### 8. 신청금 입금계좌

납부금액	오피스텔: 금일백만원(1,000,000원) / 근린생활시설: 금오백만원(5,000,000원)
예금주	주식회사 태릉건설      은행 및 계좌      농협은행: 301-0262-9243-31

\* 이계약시 전액 환불

### 9. 사업관계사명칭

시행사공사	(주)태릉건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126, 오비트타워 1211, 1212, 1213호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8층(여의도동, 케이티비빌딩)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서업영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에 사용된 CG는 스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건물 크기, 위치 등은 실제보다 크거나 가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행사 (주)태릉건설      HUG      NH농협은행      청라 국제업무단지 매머드급 규모 | 총 1,015실(65.65㎡~102.60㎡)

- 전용면적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선(건축지수)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에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지방세 등은 미포함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면적으로 하여,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1522-0119**  
경기도 부천시 삼곡동 172-15, 1층(부천역 바로 앞)



# “조달시장, 10년전 단가... 정책자금 이자도 천차만별”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앙부처 소극적 규제 개선 아쉬워  
해묵은 기준, 조달 참여 기업 악영향  
과도한 단가 삭감에 왜곡현상 초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조달시장과 금융 분야에 집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규제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조달시장의 경우 해묵은 기준 때문에

조달 참여 기업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금융 분야는 가뜰이나 소외된 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역차별을 받거나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재창업의 발목을 잡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규제 개선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차관급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취임했다.

박 옴부즈만은 12일 “정부 조달은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시장인데 자재 단가나 인건비 산정 기준이 5년전, 1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많아 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를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이자도 천차만별인데다 오히려 어려운 기업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 면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조달시장에서 매년 재료비나 인건비 등 원가 상승요인에도 다수공급자 계약(MAS)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업 현장의 불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협상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이 있지만 실거래가격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삭감하다보니 가격 왜곡 현상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애로는 지난 12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주요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옴부즈만은 오는 3월부터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금은 없어진 연대보증 문제 역시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 해결점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30년간갑게 기업을 운영하며 대표의 말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모습만 경험했던 그가 ‘규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맡으며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모습이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는 현안과 문제점을 발굴, 끈질기 노력해서 ‘시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대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성의없이 대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속내도 털어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게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농사와 산림 관련된 부처는 규제 개선에 다소 미온적인 것 같다(웃음)”는 말로 애둘러 소극적인 부처들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도 기업인 출신이지만 옴부즈만이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풀어지는 것은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이나 애로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뛰다보니 지난해엔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로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 연어의 지정규제 부담 완

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거둔 것도 그 중 하나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 연어시장이 6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한 해에 수입하는 연어만 7000억원 정도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군과 수협이 힘을 모아 개발한 연어 양식기술이 위해 우려종 지정 때문에 고사될 위기에 있었다. 적극 행정을 통해 결국 연어알을 수입, 육상에서 양식해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연 15조원인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전용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게 된 것도 박 옴부즈만이 노력해 해결한 규제 개선 사례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돼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가용 비행기 이용객이 국내 타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임 관세청장하고 현장까지 답사를 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애로가 해결돼 하루에 약 2대 꼴로 이용하는 SGBAC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가 한결 업그레이드됐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한샘, 140cm 상판적용 ‘아이디S’ 책상 선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사용 가능



‘아이디S’ 책상

한샘은 신학기를 맞아 한샘디자인파크 등 오프라인 매장서 신제품 ‘아이디S’ 책상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샘 ‘아이디S’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사용 가능한 책상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무난한 디자인에 최대 140cm의 넓은 상판을 적용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책받침 아니라 학용품, 화장품 등 작은 비품들이 많은 점을 반영했다.

책상 표면에는 LPM(저압흡착지) 소재를 적용해 스크래치나 들뜸 현상을 방지했다. 또, 모바일 학습이 많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USB와 콘센트 충전이 가능한 멀티탭 기능을 추가했다.

이 제품은 책상과 책장이 결합된 ‘일자책상’과 분리된 ‘단독책상’ 중 선택 가능하다. 사이즈는 가로 120cm와 140cm 중에 고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中企 R&D 인력, 20대는 줄고 40대 늘어

중기연구원 R&D인력 현황분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R&D인력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 연구원의 청년 비중은 2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 연구원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개발 인력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구능력 상실을 막기 위해 청년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 정

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연구원의 고령화 현상은 최근 10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연구원 비중은 지난 2008년 78.4%에서 2018년 54.3%로 24.1%포인트 줄었다. 이는 중견기업(64.7%)과 일반 대기업(62.0%)의 청년 연구원 비중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중소기업의 40대 이상 연구원 비중은 두 배로 뛰었다. 2008년 21.6%이던 중소기업의 40대 이상 연구원 비중은 2018년 45.7%로 24.1%포인트 늘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중기부, 1951억 규모 틱스 창업지원정책 발표

# “4차 산업혁명 분야 확대... 소·부·장 특화”

(소재·부품·장비)

틱스 연중 수시로 모집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951억원 규모의 ‘2020년도 틱스(TIPS) 창업팀 통합 지원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프리틱스(Pre-TIPS)·틱스(TIPS)·포스트틱스(Post-TIPS) 사업별로 별도 발표했던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 사업별 신청 및 평가시기를 사전에 공지해 창업기업과 투자자가 한 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틱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투자(연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하면 엔젤투자자와 정부 연구·개발(R&D) 등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성장단계별로 나눠 프리틱스 30개, 틱스 300개, 포스

트틱스 40개 내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틱스는 1000만원 이상 엔젤투자를 유지한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틱스는 틱스 운영사가 1~2억원을 선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포스트틱스는 10억원 이상 후속 투자를 유지한 틱스 성공기업에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 프리틱스는 2·5·9월로 세 차례, 포스트틱스는 5·6월과 10·11월로 두 차례, 틱스는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올해 틱스는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우대 정책 및 포럼을 확대한다. AI·헬스케어·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확대하고 소재·부품·

장비 가점과 특화형 추천권을 신설한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프리틱스 성과평가를 운영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프리틱스 성공판정기업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프리틱스 졸업기업에 운영사의 투자 유치를 통한 틱스 참여 기회를 준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기술분야별로 구성됐던 분과위원회를 진출 희망 국가별로 재구성한다. 진출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 항목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글로벌 진출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틱스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틱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틱스타운 및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韓 의료 영상기반 3D 프린팅 표준안,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신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ISO/IEC JTC 1/WG 12(3D프린팅 및 스캐닝) 분야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의료 영상 기반 3D프린팅 모델링에 관한 표준안 2건이 신규 프로젝트로 최

종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전문가 주도로 해외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경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된 표준안 2건은 환자의 의료 영상에 기반을 둔

맞춤형 3D프린팅 보형물 제작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실제 의료용으로 사용될 정밀한 환자 맞춤형 3D 모델과 3D프린터를 이용한 제품·기기 제작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월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 신년 기자회견에 주말 반납 文, 구체적 경제비전 밝힐까

내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개최  
‘확실한 변화’ 관련 집중질문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과 12일 주말을 반납한 채 ‘경자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 및 민생 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 등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신년 기자회견 행사의 무게감이 남다른데 애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문 대통령은 주말을 반납한 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국정운영 등 우리사회 전반적인 현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주말을 반납하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신년사를 통해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따라서 다가올 기자회견 때 구체적인 비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래서인지 다가올 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확

실한 변화’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 때 ‘경제’와 ‘평화’를 각각 17번씩 가장 많이 언급했다. 경제 분야의 방향으로는 공정·혁신·포용을 강조했고, 일자리·노동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변화·성과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현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월10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경제”를 총 35번 언급하며 가장 많이 부각시켰다. 이러한 작년 신년 기자회견은 다가올 기자회견 때도 문 대통령이 경제 현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8일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부동산 안정은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향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다가올 기자회견 때 ‘부동산 정책 비전’이 언급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우승준 기자 dn1114@

## 민주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강행 할 듯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총선정국에 돌입하면서 패스트 트랙 정국은 사실상 이번주를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되고, 정 후보자의 자질·역량을 두고 여야가 설전하면서 정국경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가 지난 7-8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인사 관련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따라서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민주당은 범여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흐트러질 것으로 예측해 소속 의원에게 본회의의 소집령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의 표결을 앞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두고도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 기성정당 심판? 反文연대 구성? 정계복귀 초읽기... 철수의 속내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바른미래 vs 자유한국 vs 새 정당  
정치권, 안 전 대표 행보에 촉각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성 정당 심판론을 내세운 신당창당이나, 반(反) 문재인 연대 구성을 위한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전격 합류이나 등 여러 수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안 전 대표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뒤 독일로 떠났고,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체류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당원 메시지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의 영상편지 등을 통해 정계 복귀 물밑 작업에 나섰다. 정치권은 안 전 대표 행보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야권 정치 지형도 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안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펼치며 반문연대에 합류할지, 양당 심판론을 부각하며 신당을 창당할지 등 여부다.

현재 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가 반문연대에 무게를 둘 경우 기존 소속 정당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은희·이태규·김상화 등 안철수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혁신 의지를 담은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과 발을 맞출 것이라 예측도 나온다.

다만 안 전 대표 영입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9일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선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통추위 목적은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통추위 위원장을 맡은 박준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안철수 합류”를 목표로 한다”며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고 언급했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

한 새로운보수당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대표는 줄곧 ‘기성 정당의 폐해’를 강조하고, ‘양당제 극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접촉은 어려울 것이라 게 정치권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으로의 합류도 미지수다. 손학규 대표가 최근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면서 노선이 불안정한 상태다.

정계 사정을 감안하면 안 전 대표는 복귀 후 신당을 만들 것이라 예측이 우세하다. 창당 후 야권 통합 연대를 구성할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석대성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탈북학생 진로역량 강화 2019 겨울방학학교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탈북학생의 학습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13일~16일까지 3박 4일간 미리내수련원(경기도 양평 소재)에서 탈북학생, 교원, 자원봉사자 등 183명이 참여하는 ‘2019학년도 탈북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탈북학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탈북학생은 2761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초중고에는 587명의 탈북학생이 재학 중이다. 2018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탈북학생 5명 중 1명 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중에는 학교별 학습 멘토링 △격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토요일점방과후학교 △방학에는 방학학교를 운영하여 탈북학생이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소수의 지도 강사가 있는 일반적인 캠프 형태가 아닌 교원과 탈북학생이 1대1로 참여하는 멘토링 형태의 캠프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탈북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의 함양과 적절한 진로 설계·진학 선택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겨울방학학교가 탈북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 총선 임박하니 민심달래기? 72건 중 61건이 ‘세금감면’

지난해 12월 국회통과 개정세법  
복지예산 뒷받침 세수 줄어들 듯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 항목 72건 중 61건이 국가세금(국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도한 복지 예산을 뒷받침할 세수 수입(세수)도 점차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점검’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총 61건이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조세지출을 확대·연장한 대표 사례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연장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

신설 항목으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제주도 및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있다.

국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끝날 예정이던 조세지출 항목 34건 중 절반이 넘는 18건을 연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이다.

반면 세법 개정으로 조세지출을 축소·폐지한 항목은 11건에 불과하다. 과세유형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을 축소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 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은 폐지했다.

이같은 현상 중 하나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조세지출 항목을 더 늘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개정 항목 61건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1852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원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다.

/석대성 기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면서 2년 연속(2017년, 2018년)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미국 채용문 뚫었다 수료생 전원 ‘美 취업’

미국취업과정 수료생 대상 성과  
해외취업연수 운영기관 A 획득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가 운영하는 미국 취업 과정 수료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취업 성과에 따라 2년 연속(2017, 2018년)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과정에 대한 평가는 올해 6월 이후 진행된다.

K-MOVE스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해 직무교육과 어학교육, 해외체류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제공해 해외취업 인재를 양성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연수과정 종료 후 1년간 해외취업자에 대한 관리와 최종 성과 측정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월드잡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2017년부터 미국 취업 과정(과정명: 미국취업 경영

정보시스템 실무자 양성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수료자 100%가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 대학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2019년에는 미국 취업 과정 외에 베트남 취업 과정(과정명: 베트남 제조업 특화 SCM 실무자 양성과정)으로 확대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등급을 받음에 따라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2020년 해외취업 연수사업 미국 취업 과정 신청 시 우대되고,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는 해외취업 5단계 전략을 통해 해외취업자 양성에 나서고 있다. 1~3단계는 저학년(1~2학년) 학생 중심, 4~5단계는 고학년(3~4학년)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KU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자체 예산 약 1억 원을 활용해 예비 해외취업자를 육성하고, 해외인턴십과 K-MOVE스쿨 연계를 통해 해외취업자를 배출하고 있다. 항공권과 숙박비, 등 해외인턴십 체류비 전액은 학교가 부담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동국대 석림동문회

#### 발전기금 3400만원 전달

동국대학교는 지난 9일 오후 동국대 석림동문회 회장 성우스님이 윤성이 총장에게 발전기금 3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981년 동국대학교 승가학과를 졸업한 성우스님은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과 대한불교조계종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고 있으며, 과거 발전기금 500만원과 종비생



동국대 석림동문회 회장 성우스님(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동국대 윤성이 총장에게 발전기금 3400만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속사 해광원기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 김승현 국민대 교수 서울라이트 디자인마켓 매출 전액 기부

국민대학교는 의상디자인학과 김승현 교수가 최근 열린 DDP 서울라이트 디자인마켓에 참여해 ‘지속가능 패션’을 주제로 다양한 상품을 기획해 시민과 소통하고, 매출액 전액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라이트는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동대문에서 선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이자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보름간 마켓, 문화공연, 포럼, 워크숍, 전시 등 풍성한 행사를 선보였고, 올해 주최측 추산 약 100만명의 국내외 관광

객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라이트마켓에는 동대문 상인과 소상공인, 대사관, 대학 교수, 학생 등 총 270여개 업체와 개인이 패션상품을 전시했다. 국민대 김승현 교수와 학생들은 자연을 손상시키거나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패션을 창조하는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김 교수는 “방문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고 주관단체인 서울디자인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용수 기자

## 숙명여대, 여대 중 취업률 2년 연속 1위

(서울권)

취업률 64.4%... 약학대학 96.3%  
예체능·사회과학·어문계열도 높아  
‘스노웨이’ 등 취·창업프로그램 주효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권 4년제 여자대학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는 교육부가 지난 10일자로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2018년12월31일 기준)에서 취업률 64.4%를 기록해 서울권 여대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과별 취업률을 보면, 약학대학 96.3%, 앙트러프러너십집공 85.7%, 독일어·문화학과 81%, 공예과 80%, 글로벌서비스학부 80% 등으로 전통적인 약학계열 강세와 함께 일반적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어문계열 및 예체능계열, 사회과학계열 학과 등도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숙명여대는 취업률이 상승한 배경으로, 대학측이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와 취·창업 프로그램, 정부 사업 참여를 꼽았다. 숙명여대는 2015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



숙명여대 VR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다. 학기 중에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모의시험 등 취업스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사회 각계에 진출한 현직 동문과 함께하는 취업대비반 특강 등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스노웨이(SNOWAY)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경력과 역량관리를 포털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로탐색과 취업대비가 가능토록 시스템화했다.

다양한 교과, 비교과활동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진로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디자인하는 나의 수업’ 자기주도 진로설계 프로젝트도 운영된다.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개인의 역량은 SNOWAY 포 트폴리오로 구성해 기업에 지원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정부사업에서도 성과평가 A등급을 놓치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학생 직무체험, 서울시정 인턴십, 산학협동교육, 기업실무 인턴십,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단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본역량은 물론 실무능력 또한 뛰어난 여성인재 육성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숙명여대 옥경영 경력개발처장은 “입학 초기 학생의 직무·적성을 진단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하는 사회진출 분야로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진로·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국정화 폐지 3년 만에...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 도입

中 전근대사, 高 근현대사 위주

올해 1학기부터 중·고등학생들은 바뀐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타 교과서는 2018년 도입됐으나,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이후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손질해 2년 늦게 도입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새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개항기 이후 현재까지 근현대사 위주다. 실제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6종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로 구성됐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전근대가 27%, 근현대사 73%로 이뤄졌다.

기존 교과서는 중·고교 모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반복 학습하는 문



미래엔 출판사의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중학교 역사 교과서, /미래엔

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전근대사 위주로 전반적인 역사 지식의 토대를 다지고, 고등학교 때는 근현대사 위주로 큰직한 정치·사회 변화상을 배우게 된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1~5단원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내용이고 6단원만 근현대사를 짧게 다룬다. 반면 이 출판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1단원만 전근대사고 2~4단원은 근현대사를 다룬다.

교과서에 담긴 세부 학습요소의 양은 기존 교육과정 대비 20% 가량 축소됐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거 논란이 됐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기존 교과서보다 분명한 표현으로 기술됐다. 6.25전쟁은 북한의 남한 침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표현이 통일됐다.

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집필진이 표현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일제의 물자 수탈,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등 일제 침탈사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은 분량과 내용의 폭이 확대됐다.

그동안 공교육에서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이 많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은 대폭 늘었다.

검정체제인 이번 역사교과서는 학교가 여러 교과서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계에서는 단일 교과서나 선택 교과서나를 놓고 잡음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전액 장학금

근로복지공단 1인당 최대 500만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고교생 자녀를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애등급 제1급이나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 올해 고등

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올해 고교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올해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

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선발 이후 장애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13일부터 2월14일까지 신청인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 재할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2020년 새해에도  
 가족의 건강은 베콤씨로!  
 한 끼의 완성  
**베콤·씨<sup>®</sup>**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LH, 겨울철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하남갈림 B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안전점검은 겨울철 기온하강에 대비해 주요공종의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변창흠 LH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점검단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LH



**NH투자증권, 리더스 컨퍼런스 개최**  
 NH투자증권은 9일 오후 여의도 63컨벤션 센터에서 전 임원 및 부·점장을 대상으로 리더스 컨퍼런스(Leaders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리더스 컨퍼런스는 2020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 함양 및 경영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전사적 행사이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왼쪽)이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H투자증권



**CJ대한통운, 설 명절 비상근무 본격 돌입**  
 CJ대한통운이 설 명절 택배 성수기를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CJ대한통운은 13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설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일반 택배 물량에 명절 선물이 더해지면서 이번 설날 물동량은 평소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대한통운종합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전국 물동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오렌지라이프, 2020 영업전략회의**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은 지난 9일 "올해는 사업모델을 간결하게 재구성해 비즈니스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국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년 영업전략회의에서 "2019년에는 FC활동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품믹스를 보장성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렌지라이프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불공평한 평형 배정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A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이 신축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조합원들 중 기존 42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 일부는 25평형+54평형의 2주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조합은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평형+54평형 분양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5평형+46평형을 분양 신청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분양신청서 방문접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고지를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사무실 내부 칠판에 "42평이 25+54평 신청 시 접수불가"라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42평형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는 25평형+54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분양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이에 기존 42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에 25평형+45평형을 분양 신청 한 조합원들은 A조합을 상대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주위적 청구).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 관리처분계획 중에 '42평 조합원들에 대한 25평+46평의 평형 배정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예비적 청구).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593 판결).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42평형 조합원들과 그 외 다른 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사이는 물론이고, 42평형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권리의 차등을 둔 것으로, 이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부 42평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 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현저히 평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에 관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 법원은 도시정비사업에도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져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고,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법리 역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그러면서 위 법원은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평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면적, 위치, 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될 것은 아니고,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구분소유권 배분 방식의 형평성, 각 구분소유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더 나아가 위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조합은 42평형 조합원들에게 최종적인 분양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전체 배분 내용이 각 평형별 물량 자체가 변경될 수 밖에 없어서, 조합원의 분양금 내역도 연쇄적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조합은 이처럼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취소되는 등으로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분양 신청을 받는 과정이나 이를 기초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평형 배정, 새로운 아파트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 에쓰오일, 임직원 모여 청계산서 결의 다져

**알 카타니 CEO 등 임직원 200명  
 청계산 이수봉에 올라 덕담 나눠**

에쓰오일이 청계산에서 신년 산행 행사를 가졌다. 에쓰오일은 지난 11일 서울 청계산에서 임직원 신년 산행 행사를 갖고 힘찬 새해 각오를 다졌다고 12일 밝혔다.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는 임원과 부장급 이상 직원, 올해 신입사원 등 200여 명과 함께 청계산 이수봉에 올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알 카타니 CEO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확실성은 비전 2025를 달성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



지난 11일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오른쪽)가 청계산 임직원 신년산행에서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에쓰오일

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새로운 '성공 DNA'를 요구하고 있다"며 "원팀이 되어 창의적인 사고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들을 깨는 사고와 행동, 협력으로 업무에 임해 내재된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인사

- ◆ **인사혁신처** ◇ 고위공무원(실장급) 전보 △ 인사혁신처 차장 김우호 △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만석
- ◆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권진섭
- ◆ **효성그룹** ◇ (주)효성 부사장 경영진단실장 유영환 △전무 경영진단실 조재준 △상무부 지원본부 총무팀장 안용학 ◇ 효성티앤씨(주) △전무 터키법인장 김문선 △상무 인도 델리법인장 임장규 △홍콩법인장 김용태 △상무부 터키법인 영업담당 이은홍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 PU 해외영업팀장 강태호 △철강2PU 스테인레스판재1팀장 홍재형 △경영전략실장기수 △커뮤니케이션팀장 김성수 ◇ 효성첨단소재(주) △전무 탄소재료사업단장 최송주 △상무 타이어보강재PU 기획 담당 주영관 △재무실장 임석주 △상무부 타이어보강재PU 울산공장장 김병수 △GST 중국법인장 강영호 ◇ 효성중공업

- (주) △전무 홍보 담당 이정원 △상무부 준법지원팀장 이해정 △ 웰턴사업단 이주은 ◇ 효성화학(주) △상무 PP/DH PU 시장개척 담당 이근우 △상무부 PP/DH PU DH생산팀장 조정일 △필름PU 영업팀장 유규일 ◇ 효성굿스프링스(주) △상무 발전 및 당사사업 담당 장영관 ◇ 효성티앤에스(주) △상무 글로벌사업본부장 권상환 △국내사업본부장 김창학 △미국 NHA 기획 담당 계민형 △상무부 국내사업본부 이동훈 ◇ 효성캐피탈(주) △상무 리스크관리 담당 이석민
- ◆ **KB금융지주** ◇ 승진 (부사장 대우) △경영연구소 팀장겸연구역 황원경 ◇ 전보 △KB Innovation HUB센터장 곽창영 △연계기획부장 김형성 △CIB기획부장 이원종 △개인고객기획부장 최명철 △SME기획부장 정동교
- ◆ **한국거래소** ◇ 부사장 신규(재) 보임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사마케팅부장 강병국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 이미현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유준수 △파생상품시장본

- 부 글로벌파생시장부장 오현욱 △파생상품시장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고영태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장 이재훈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이상우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실장 이국철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정상호 ◇ 부서장 전보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민경옥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정지현 △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부장 김을수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방홍기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 이정의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신병철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권찬국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장 김운생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이충연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이부연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시장부장 이주환 △파생상품시장본부 청산결제부장 배홍수 △파생상품시장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박찬수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장 공도현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 남승민

-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 승진 △ 혁신성장팀장 김형오 △ 혁신인사팀장 김현태 △ IT팀장 김광울 △ 코엑스경영팀장 서정석 △ 마케팅전략팀장 김구현 △ 멤버십마케팅팀장 장재석 △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2팀장 엄혜은 △ 강북힐튼점 운영기획팀장 박찬진 △ 부산롯데점 오퍼레이션2팀장 이재만 ◇ 전보 △ 소통실장 정수용 △ 안전보안실장 이미선 △ 감사실장 주양국 △ 노사경영지원실장 권익준 △ 재무관리실장 한창영 △ 강남코엑스점점장 이정민 △ 강북힐튼점점장 박강우 △ 인재개발원장 문치택 △ 힐튼서울비즈니스호텔 강명희 △ 감사기획팀장 조상현 △ 경영전략팀장 황상일 △ 재무팀장 윤병호 △ 내부회계관리팀장 허경영 △ 매스마케팅팀장 박찬두 △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1팀장 김익돈 △ 강남코엑스점 오퍼레이션3팀장 김선영 △ 강북힐튼점 머신영업팀장 최동운 △ 부산마케팅2팀장 이민호
- ◆ **파이낸셜뉴스** △ 문화스포츠부장 정순민 △

- 국제부장 조창원 △논설위원 최진숙
- ◆ **JIBS제주방송** △ 경영사업국장 전광호 △ 보도국장 강석창 △ 편집제작국장 유화성 △ 기술국장 양은철

## 부음

- ▲ 박순례 씨 별세, 이명자(전 광주시의회의원)씨 모친상, 정동년(전 광주 남구청장)씨 장모상 = 12일 오전,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실 301호, 발인 14일. ☎ 062-227-4000
- ▲ 정창길씨 별세, 김경현(KB증권 신디케이션 부 상무부)씨 장인상 = 12일 오전 8시,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30분. ☎ 031-249-8463
- ▲ 이아자씨 별세, 김중운(일우서울신문사 광고마케팅부장)씨 장모상 = 11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9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 031-787-1500



# #맛집 #모바일 #친환경... 유통가 명절선물 변화 키워드

**신세계백화점** 우텐더·계방식당 등 맛집 선물세트 품목 20% 늘려

**롯데백화점** 노포 맛집 세트 비롯해 전국의 명인·이색 선물세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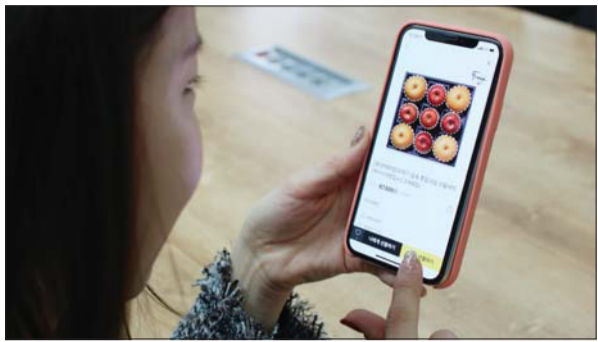
**현대백화점** 유명맛집 레시피 활용 굴비 등 20여종 2만세트 한정판매



신세계백화점에서 모델들이 명절 선물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모델이 신세계상품권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고객이 롯데백화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롯데쇼핑

설 명절을 2주가량 앞두고 유통업체가 분주하다. 올해는 유명 맛집과 협업한 미식 선물세트를 비롯해 모바일 선물세트를 강화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유명 맛집과 협업한 상품의 매출은 매년 평균 이상의 성적을 냈다. 최근 3년간 신세계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은 2017년 2.1%, 2018년 14.3%, 2019년 7.2%로, 이중 맛집과 협업한 설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은 2017년 7.8%, 2018년 22.4%, 2019년 11.5%를 기록했다. 맛집과 협업한 설 선물세트의 매출 증가율이 전체 설 선물 매출 증가율의 최대 3배가 넘는 것이다.

## ◆유명 맛집을 선물하자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설보다 맛집 협업 선물세트 품목을 20% 늘렸다. 압구정동 소고기 '우텐더', 장요리 전문점 '계방식당', 숙성한우 맛집 '우가' 등 더 다양한 식당과 손잡고 제품을 내놨다. 우가와 계방식당의 경우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 품목으로 1++ 등급 한우만 사용한 안심 스테이크와 채끝, 등심 스테이크가 담긴 '우텐더 시그니처 세트', 1++ 숙성 등심과 차돌박이로만 구성된 '우가 숙성한우 세트' 전통 비법을 그대로 담은 '계방식당 간장계장 세트' 등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노포 맛집 세트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명인들이 만든 선물세트, 이색 재료 세트 등을 강화해 선보인다. 34년 전통의 한우 전문점 '벽제갈비'의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 세트. /현대백화점그룹

'벽제 감사 세트', 갈비 명가 '송추가마골'의 '스페셜 가마골 세트' 등을 판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명인'들의 선물세트도 총 8종 준비했다. 전통 식품명인 제35호 '기순도 명인'의 '전통 장 증가 세트 2호'와 식품명인 제37호 '권기옥 명인'의 '명인궁중장-황(皇)'이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도 유명 맛집의 레시피를 활용한 양념육, 전통 식품 명인의 장류를 더한 굴비 등 선물세트 20여 종을 2만세트 한정으로 판매한다. 전통식품 브랜드 '명인명촌'과 협업한 '육독세트' '굴비 세트'로 맛을 차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맛집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명절 선물로도 맛과 품질을 살린 미식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 맛집도 백화점 입점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세는 모바일 선물하기

모바일로 선물을 주고 받는 이른바

'선물하기'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롯데백화점은 오는 23일까지 카카오톡에서 롯데백화점의 인기 설 선물 세트를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 X카카오톡 설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명절을 맞아 부담 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카카오톡 선물 세트와의 차별화를 위해 정육, 청과 등 신선식품의 경우, 백화점 전용 포장을 제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에서 검색창에 롯데백화점을 입력한 뒤 원하는 상품을 선택, 선물하기를 누른 후 선물할 친구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된다. 이후 선물 받을 사람이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품 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2~5일 내 발송된다.

SSG닷컴은 기존 운영 중이던 '선물하기' 서비스를 전문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간단한 모바일 교환권부터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판매 상품까지

폭넓은 상품 구색이 강점이다.

신세계 상품권 역시 명절 선물에서 빠질 수 없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24, 스타벅스 등 전국의 신세계 계열사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론, SSG PAY 어플을 이용해 SSG머니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 ◆친환경 포장재로 전면교체

백화점 업계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불필요한 포장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설 명절부터 과일 선물세트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모두 종이로 교체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 박스'도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전체 과일 선물세트의 30% 수준인 1만개에 종이 완충 받침을 우선 도입하고 2021년까지 모든 과일 세트 포장을 종이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아기옷·속옷 등 세탁기로 삶으세요”

홈플러스 '파세코 미니클린' 선보

홈플러스는 속옷이나 수건, 아기 옷 등 부피가 작은 빨래를 따로 삶음 세탁할 수 있는 '파세코 미니 클린'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수용량 2.8kg의 소형 세탁기인 이상 품은 사이즈(405\*725\*385mm) 역시 컴팩트하게 디자인됐다. 공간 효율성이 높아 1인 가구에서 사용하거나 세컨드 세탁기로 적합하다.

본체는 깔끔한 흰색으로 구성하고 상판은 블랙 글라스 도어를 통해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을 줬다. 상판에 위치한 조작부는 터치식으로 만들어 세련미까지 높였다.

컴팩트한 크기만큼 알찬 기능도 갖추

고 있다. 먼저 아기 옷, 고온 세탁, 고온 삶음 등 총 세 가지의 삶음 기능이 탑재돼 있어 용도에 맞는 세탁을 지원한다. 특히 위생 관리가 중요한 아기 옷의 경우 크기가 큰 일반 세탁기에서 때론 고온 세탁하기 번거로운데 이 상품은 간편하게 삶음 세탁을 할 수 있어 아기 옷 전용 세탁기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또한 세탁-헹굼-탈수 등 전 과정을 20분 만에 마칠 수 있는 쾌속 모드는 운동복, 양말 등 소량 세탁에 용이하다. 이 외에도 차일드락 기능을 통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부재 중에도 세탁을 할 수 있는 예약 기능까지 탑재했다.

가격도 저렴하게 구성했다. 정상은 21만9000원이며 행사 카드(마이홈플러스신한/신한/홈플러스삼성/삼성)



모델들이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파세코 미니 클린' 세탁기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2만원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돼 19만9000원에 판매한다. 타사의 아기 옷 전용 세탁기 등 미니 세탁기들이 30~40만원대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이다. 이 상품은 홈플러스 강서점, 안산점, 부천상동점 등 45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 1000여가지 선물 한자리에 현대H몰, 선물세트 판매전

물량 20% 늘리고, 15% 할인쿠폰 한우·과일·참조기·굴비 등 다채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이 더현대닷컴, 현대H몰을 통해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4일까지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에서 '2020년 설 선물세트 판매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리고, 최대 15% 할인 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선물세트 신장률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27.3%였던 온라인몰 선물세트 신장률은 2016년 38.2%, 2017년 42.6%, 2018년 44.9%, 2019년 48.1%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400여 종과 건강·생활용품 600여 개 품목 등 총 1000여 개 품목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상품은 1등급 한우 등심·불고기·국거리 각 450씩으로 구성된 '현대



특선한우 정 세트(16만원), 사과(8개)·배(6개)로 구성된 '현대명품 사과배 난 세트(16만원)', 국내산 참조기(10미)로 구성된 '영광 특선 참굴비 매 세트(13만원)' 등이다.

또한 5만~1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사인머스켓(1개), 애플망고(4개)로 구성된 '사인머스켓 애플망고 세트(9만원)', '알뜰 전복 세트(국내산 전복 1kg, 8만원)'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현대H몰은 신선·건강·가공식품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설 선물세트 등 총 5000여 품목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H몰 단독 브랜드인 '현대명가' 정육 선물세트 40종을 선보인다. 온라인몰별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 롯데호텔 '설날 에디션' 올댓호텔 선보

롯데호텔의 프리미엄 호텔 셀렉트숍 서비스 '올댓호텔'은 2020년 경자년 새해 설을 맞아 감사한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 '설날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시그니엘 구스 다운 베개 2개와 연하장을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담아 제공한다.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최근 수면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슬리포노믹스(Sleep+

Economics)'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건강의 기초가 되는 슬리포노믹스 상품은 명절 웰빙 선물로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구스다운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헝가리산 구스 다운이 보드라운 촉감의 커버 및 인서트와 함께 숙면을 돕는다. 700g 중량의 풍성한 베개는 복원력이 좋아 사용자의 수면 자세에 맞춰 모양이 잡혀 편안하며, 우수한 통기성



롯데호텔 올댓호텔이 '설날 에디션'을 선보인다. /롯데호텔

으로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해 실용성도 겸비한 숙면 '필수템'이다. 올댓호텔 설날 에디션의 가격은 30만원, 디퓨저 추가 시 38만8000원이다. /박인용 기자

# 56조 中 바이오 무대로 눈 돌린 국내 바이오시밀러社

(年 18% 성장)

**삼성바이오에피스 'SB12' 임상승인  
중내 임상, 인허가·상업화 협업 계획**

**셀트리온 난평과 '브이셀 헬스케어'  
바이오약품 생산시설 건립방안 검토**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의약품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 규모로 연평균 13% 넘는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올해 304조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 'SB12'의 임상시험 신청서(CTA)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이 지난해 8월 임상 3상을 중국에서 개시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솔라리스는 희귀난



삼성바이오에피스

치성 질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은 약 4조원 규모로, 환자 1인당 연간 치료 비용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가의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총 50명의 PNH 환자를 대상으로 SB12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효성, 안전성, 면역원성 등을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임상 승인을 통해 글로벌 임상을 중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중국에서는 상반기 첫 환자 방문을 목표로 임상 시험이 진행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SB12

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고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중국 헬스케어 벤처펀드 운용사 'CBC그룹' 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그들이 세운 자회사 '에퍼메드 테라퓨틱스'와 함께 SB12의 중국 내 인허가 및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현재 에퍼메드 테라퓨틱스와 SB3의 중국 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안과질환 치료제인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SB11)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B15)에 대한 중국 내 임상, 인허가 및 상업화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그룹 역시 지난해 홍콩계 다국적 기업인 난평그룹과 손잡고 합작회사(JV)인 '브이셀 헬스케어'를 설립하고 바이오시밀러의 중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이셀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라이

선스 계약을 맺어 램시마·트룩시마·허주마 등 3가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중국 내 개발·제조·판매권을 갖는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상반기 중 중국 현지에 글로벌 수준 규모와 설비를 갖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 건립 공장은 20만리터 규모로 추산된다.

무서운 성장세와 낮은 규제 장벽의 영향으로, 중국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바이오의약 분야 기술력을 가진 외자기업 중국 진출을 장려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관련 우호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중국 바이오의약품은 연평균 성장률이 18%에 이르며, 올해 시장규모가 56조66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GCAM 직원들이 미국 텍사스주 에딘버그에 위치한 GCAM 신규 혈액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GC녹십자 신규 혈액원 개원... 최대 5만리터 생산 (원료혈장)

GC녹십자는 미국 현지법인 GCAM (Green Cross America)이 지난 9일 (현지시간) 신규 혈액원을 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혈액원은 미국 텍사스주 에딘버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대 5만리터의 원료혈장 생산이 가능하다. 이로써 GC녹십자는 미국 내 총 열 두 곳의 자체 혈액원에서 최대 65만 리터에 달하는 양질의 원료혈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혈장 안의 필요한 성분만을 고순도로 분리한 의약품인 혈액제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혈장 공급처가 확보돼야 한다. 이 때문에 GC녹십자는 지난 2009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혈액원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미국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혈액원을 설립한 바 있다.

박성익 GCAM 대표는 "안정적인 혈장 확보는 북미 혈액제제 시장 진출에 기반이 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에 추가적인 혈액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두 곳의 혈액원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삼바, JP 헬스케어서 올해도 '그랜드볼룸' 배정

800석 규모로 메이저 제약사에 배정 높은 위상 인정받아 2년연속 발표 혁신과 성장 주제로 중장기비전 제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자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삼성바이오는 2017년 한국기업 최초로 메인 트랙을 배정받은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한국기업 최초로 '그랜드볼룸'을 배정받아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그랜드볼룸은 약 800석 규모의 대형 발표회장으로 화이자, 로슈, 존슨앤존슨 등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들에게만 배정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바이오는 올해에도 2년 연속 '그랜드볼룸'을 배정받아 발표에 나서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지난해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랜드볼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탄탄한 입지와 주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위상을 인정받았다.

삼성바이오는 현지시간 15일 오후에 있을 발표를 통해 '바이오 산업에서 삼성의 혁신과 성장'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와 2020년 목표 및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에는 대표이사인

김태한 사장과 존 림 부사장이 나선다.

올해로 38회째를 맞은 'JP모건 컨퍼런스'는 매년 1월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초청을 받은 전세계 500여개의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주요 사업성과 및 비전 등을 발표하는 헬스케어 분야의 최대 투자 행사다. /이세경 기자

## 조광현 카이스트 교수팀 초기 원천기술 개발

대장암세포 정상세포로 돌리는 기술

KAIST는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사진)이 시스템생물학 연구를 통해 대장암세포를 일반적인 정상 세포로 되돌리는 초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항암치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암 화학요법은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해 죽임으로써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체 내 정상적으로 분열하는 세포들까지도 함께 사멸시켜 구도, 설



사, 탈모, 골수 기능 장애, 무기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시스템생물학연구 방법을 통해 대장암세포를 정상 대장세포로 변환할 수 있는 핵심조절인자를 탐구했고, 그 결과 다섯 개의 핵심 전사인자와 이들의 전사활성도를 억제하고 있는 후성유전학적 조절인자인 'SETDB1'을 발견했다. /한용수 기자 hys@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극단파 열치료술'이 간세포암이나 간전이암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병원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극단파 열치료술'은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의 기기를 사용해 온도를 섭씨 150도 이상 고온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종양을 높은 온도로 완벽히 괴사시킬 수 있고, 종양이 혈관 옆에 인접해 있어도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고주파 열치료술'과 비교해 같은

크기의 종양을 치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에 불과해 큰 종양을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시술 중 통증도 적은 편이다. 아울러 전류 저항과 상관없이 폐나 뼈와 같은 고주파 제한 장기에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세포암이나 전이암의 주요 치료법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최소 침

## 이대목동병원 초극단파 열치료술 효과 '눈길'

전자레인지 원리 이용... 종양 괴사 '고주파 열치료술' 대비 치료시간 절반

크기의 종양을 치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에 불과해 큰 종양을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시술 중 통증도 적은 편이다. 아울러 전류 저항과 상관없이 폐나 뼈와 같은 고주파 제한 장기에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극단파 열치료술은 초기 간세포암의 경우 10분 정도의 초극단파를 가함으로써, 외과적 간절제술에 상응하는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 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매우 적고, 시술 부위에 작은 바늘 자국만 남으며, 시술 1~2일 후 퇴원이 가능해 간종양 환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간세포암이나 전이암의 주요 치료법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최소 침

습수술인 '고주파 열치료술'은 치료 대상 종양을 초음파로 실시간 확인하며, 전신 마취나 피부 절개 없이 종양에 1~2mm 직경의 가는 바늘을 통해 높은 전류를 흘려 종양을 태우는 방법으로 지난 2000년에 국내에 도입됐다.

현재 초기 간세포암에서 '고주파 열치료술'의 치료 성적은 외과적인 간절제수술과 차이가 없어 간세포암의 국제 진료 지침에서는 초기 간세포암의 최초 치료로 '고주파 열치료술'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주파 열치료술'의 경우 종양 내부 온도를 섭씨 100도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면적의 한계로 인해 크기가 3cm 이상인 종양은 충분히 태우기 어렵고 재발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여러 개의 바늘을 찔러 시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세경 기자

# 이대서울병원,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3인실 병실·스마트 수술실 등 환자에 새로운 치유 경험 선사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전문 서비스 병원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고, 한국언론인협회가 후원하는 고객감동경영대상은 혁신과 차별화로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주는 기업의 공로를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최초로 3인실 병실을 열었으며, 다양한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선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해 5월 강서구 마곡동에 정식 개원한 이대서울병원은 기존 병실 3인실, 전체 중



지난 1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0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박미혜 이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

환자실 1인실이라는 새로운 병실 운영 체계를 채택했고, 스마트 수술실, 임상통합상황실 등 스마트 진료 시스템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또 환자와 보호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힐링정원 및 갤러리 '아트큐브'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주 수요일 다양한 음악인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부동산 정책과 실수요자



기지 수첩

나 유리  
(파이낸스&마켓부)

“구청서 주거여부 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공무원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 들어갈 수 있으세요? 조심 좀 부탁 드려요.”

4년 전 이곳 저곳 집을 둘러보다 큰 평수임에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을 계약하게 됐다. 매번 주인이 주머니는 주거조사가 나오기 보름 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 보증금 대비 큰 평수를 자랑하던 집에도 이유는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이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닌 상가다. 상가지만 주거용으로 신고가 가능해 전입신고 확정신고는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시설로 개조한 부분이 있으면 불법시설에 해당해 강제금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다.

이런 경험도 익숙해질 즈음, 날벼락이 떨어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지 주인이 주머니는 집을 팔았다. 5000만원을 쥐고 강동전세로 매매했던 주인이

주머니는 그렇게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15억원이 넘는 뽕뽕한 한 채로 돌아갔다.

새 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생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에 4000만원이 오른 보증금에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세대분리 탓이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 상태에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후에 이를 양도하면 중과세 대신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돈 없는 임차인은 거리로 나왔다. 청년을 위한 다던 청년주택은 모두 1순위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매번 또 다른 돈 없는 임차인에게 밀렸다.

현 정부의 3대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모두 겨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하는 실수요자에 ‘돈 없는 임차인’ 혹은 ‘돈 없는 청년’은 포함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

풍선의 한쪽부분을 꼭 누르면 다른 쪽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더 심하게 누르면 풍선은 결국 터져버린다.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한 부분을 누르기 위한 정책은 아닌지, 곧 터질 만한 취약부분에 대한 보안은 철저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yul115@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美 CES서 '비비고' 알렸다

대표 제품 김스낵 '비비고칩' 큰 관심

CJ제일제당은 이달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서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이 기간 CES에서 '비비고 존'을 운영하고 비비고 제품과 다양한 굿즈

를 소개했다. 대표 제품으로 선보인 김스낵 '비비고칩'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이 구매처와 가격을 물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CJ제일제당은 설명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싶은 모든 순간, 비비고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통해 한식과 한국 식문화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박인웅 기자 parki7854@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의 한 참가자가 CJ제일제당 '비비고 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CJ제일제당

## 오늘의 운세 1월 13일 (음 1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p><b>쥐</b> 36년생 백절불굴(百折不屈)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48년생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린다. 60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72년생 지혜가 생기고 영업도 잘된다. 84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날 수밖에 없다.</p> <p><b>소</b> 37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뗐서라도 달래라. 49년생 커피 한 잔이 여유를 준다. 61년생 보통 있는 일에 시시비비 가리지 말 것. 73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 빌 언덕이 필요한 날. 85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기다려보자.</p> <p><b>호랑이</b> 38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나 뜻밖의 좋은 일. 50년생 받았으면 자신도 베풀어라. 62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자. 74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86년생 가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다.</p> <p><b>토끼</b> 39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먹는 것에 주의. 51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일거리 돌아오니 이득이 많다. 63년생 비단옷 입고 밥집을 돌아다니는 격. 75년생 의견통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라. 87년생 휴대전화 교환을 고려.</p> <p><b>말</b> 40년생 부동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 52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64년생 동문서주해봐도 이익이 별로 없다. 76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88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p> <p><b>뱀</b> 41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53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 65년생 삼재이니 이혼 위기를 극복하라. 77년생 정치적인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89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p>	<p><b>말</b> 42년생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자. 54년생 언제나 진리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66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건 아니다. 78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90년생 허투르가져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p> <p><b>양</b> 43년생 오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55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 67년생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79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해보라. 91년생 여름이 갔으니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p> <p><b>원숭이</b> 44년생 기죽지 말고 살자. 56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68년생 칠혹같이 캄캄해도 곧 새벽이 오겠다. 80년생 매력적인 이상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92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p> <p><b>닭</b> 45년생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되니라. 57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한다. 69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8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93년생 백만송이 장미가 깔린 길을 걷는 기분.</p> <p><b>개</b> 46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58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70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 82년생 망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94년생 실수도 하지 않도록 점검.</p> <p><b>돼지</b> 47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59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온다. 71년생 인생은 세용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83년생 서류를 제출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95년생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p>
--	---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7	5		8
1					6
	2	6		1	7
	9	3		4	5
8					3
	5	8		7	9
	7	1		8	6
5					9
9		5		6	3

				5	
4			9	2	7
2			1		8
	4		6		5
5		3		2	9
	9	1		4	
	5		4	1	
	6	8			
			7	4	5

**스도쿠 정답**

8	2	9	7	5	1	6
6	4	1	5	8	9	3
5	7	9	8	6	1	2
3	9	6	4	1	8	5
1	8	5	2	3	6	9
7	6	1	8	9	2	5
9	5	2	6	8	7	4
8	1	8	5	2	9	6
6	5	7	9	4	2	8
2	3	1	5	8	9	7
8	9	1	6	7	2	5
2	8	9	4	7	5	1
5	4	8	6	9	1	7
1	7	6	2	8	5	9
9	1	4	8	2	6	5
7	6	2	5	1	8	9

문제 제공= **보orus**

# 김상희의四季 재뉴어리(January)

음력은 한민족의 정서를 대변한다. 구습(舊習)은 촘스럽고 병폐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서구를 중심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화한 사회가 선진 문명이라 여긴 까닭이다.

기계화로 진행되는 산업사회의 병폐를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렬하게 대가를 치르는 데는 근 반세기의 세월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오래된 것의 지혜와 가치는 재조명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1월을 재뉴어리(January)라 한다. 재뉴어리가 그리스어의 야누스(Janus)에서 기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야누스는 양면의 얼굴을 가진 신으로서 한 얼굴은 과거 쪽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면은 다가올 미래 쪽을 향하고 있다.

시간의 양면이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로 구분된다. 마음도 항상 과거를 향해 있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있다. 필자의 상념으로는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마치 야누스처럼 과거와 미래 양쪽에 꼬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걱정과 근심으로 현재를 소진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보다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근심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라고 했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요체가 됨을 통찰한 것이다.

덧붙여 임제선사는 “‘직시현금 갱무시절(直是現今 更無時節)’ 즉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시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직설했다. 자, 새로운 해를 ‘직시현금 갱무시절’ 글귀로 시작해보라.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6호

새로 나온 책

“자유가 치료다”

문명사회에서 정신병원의 역할은 ‘미친’ 사람들을 가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의 기능은 치료가 아닌 구금이였다. 격리와 감금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는커녕 악화시키기만 했다. 정신질환자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일까.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

존 풋 지음/권루시안 옮김/문학동네

책은 “자유가 치료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신보건 혁명을 이끈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바잘리아는 강제수용과 폐쇄병동 감금이 공공연히 행해지던 정신병원의 해체를 주장한 인물이다. 바잘리아의 개혁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모든 정신병원을 사라지게 한 180호 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2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바잘리아는 반파시스트 활동을 벌이다가 1944년 체포돼 반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해 정신의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1961년 말 고리치아의 정신질환자 보호소 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는 고리치아에서 병원이 아닌 강제수용소를 목격하게 된다. 정신질환자는 보호소에 들어가는 순간 인격을 박탈당했다. 창문엔 창살이 꽂혀있었고 병동 문은 자물쇠로 잠겼다. 환자들이 고리치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어서 고문과 자살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다.

바잘리아는 환자들을 묶어놓은 사슬을 풀어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줬

다.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고리치아에 모여들었고 이들은 정신병원 개혁을 추진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위계가 사라졌고 정신질환자들은 부분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됐다. 환자들은 병원복이 아닌 원하는 옷을 입었고 언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지를 스스로 정했다. 주점과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바잘리아의 개혁 운동은 정신병원 폐쇄에서 나아가 모든 보건 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신병원의 대안으로 뿌리내린 여러 제도(공공주택 공급, 협동조합 설립)는 실질적인 사례가 돼 세계 각국의 정신보건 정책에 반영됐다. 이제 이탈리아는 정신병원이 없는 나라가 됐고 보호소에 수용된 10만명의 환자는 대부분 사회로 흡수됐다. 640쪽. 2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마땅한 살인



음주 췌소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유괴 등 흉악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현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자 처벌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지 오래다. 책은 중산층 엘리트인 응급실 의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연쇄살인에 휘말리는지를 보여주는 스릴러 장편소설이다. 세상에는 죽어 마땅한 살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저자는 공공을 위한 사회적 살인이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지 독자에게 묻는다. 304쪽. 1만3000원.

안세화 지음/이메아

포근한 날씨에 골프용품 매출 ‘나이스샷’

골프 클럽 44.3% 등 19.4% 올라 관련 모자 86.6%, 장갑 21.4% ↑

털 추운 겨울에 골프업계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골프용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골프 클럽이 44.3%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을 견인했고 골프 모자, 골프 장갑 등도 판매가 각각 86.6%, 21.4% 늘었다. 이외에도 브랜드 골프웨어, 골프공 매출 역시 16.9%, 8.7%씩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마트는 12일부터 던롭 켄시오11, 켄시오X 클럽 신규라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켄시오11 신상품 드라이버를 79만 원에, 우드를 50만 원에 선보이며 유틸리티는 33만 원, 아이언세트는 179만 원에 준비했다.

이처럼 골프 비수기인 1월에 골프용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운화한 날씨의 공이 크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

간 서울 지역 일 평균기온은 영상 1.4℃ 기록했다. 이는 영하 1.2℃의 평균기온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2.6℃ 높아진 것이다.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일 수도 24일에서 15일로 9일 감소했고, 평균기온이 영하 5℃ 아래로 내려간 날은 9일에서 이틀로 대폭 줄었다.

여기에 눈 없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골프를 즐기기에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자 라운딩에 나서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따뜻한 겨울 날씨에 상품군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가볍게 걸치기 좋은 다운 베스트 매출은 73.4% 증가했다. 반면, 롱패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8% 줄어들어 대조를 이뤘다. 또, 음료 판매가 13.7% 늘었으며 일반적으로 여름철 수요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비빔라면 매출도 35.6% 늘었다.

1월 초 낮 최고기온이 20℃를 넘나들던 제주 지역 이마트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져 같은 기간 냉면 매출이 4배로 꺾중 뛰었으며 휠스포츠, 구기스포츠용품 매출도 각각 30.9%, 23.8%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2020 경자년 창업 키워드는...

#가성비 #시그니처 #1인가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창업시장은 밝지 못하다. 이유는 지속되는 불경기와 소비심리 하락이다. 반면 올해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창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업종별 올해 창업 전망에 대해 업종별 전망을 알아본다.

◆육류-무한리필 강세 속 생존 전략 불경기에 높은 관심을 받는 아이템은 무한리필과 저가 전략이다. 문제는 단순한 가격 파괴만의 저가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품질도 고려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안정훈 진장업컨설팅트 대표는 “다양한 메뉴와 낮은 판매가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한 곳에서 충족시키는 브랜드들이 지난해에도 선전했다”며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고객의 마니아층을 탄탄히 만들어내는 특화 생존 전략 브랜드의 인기가 올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차돌박이전문점 일차들은 곱창, 대창, 막창, 곱창전골 등 다양한 신메뉴로 매출 신장과 가맹점 확장을 이룬 브랜드다. 2018년에 론칭돼 약 2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다. 물류확보와 끊임 없는 신메뉴 개발도 장점이다. 지난해 차돌곱창세트와 양지소곱창전골에 이어 올해에는 대패삼겹살새우롤(대새롤)을 출시하면서 메뉴개발에도 한발 앞서고 있다.

일차들 다양한 메뉴로 가맹 확대 토고리 낮은 공급가로 점주만족

토고리 옛날막창&소갈비살은 곱창·막창 열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장점은 가맹점에 제공되는 물류공급가가 판매가 대비 30% 이내라는 점이다. 가맹점주의 수익률이 높다는 입소문을 타는 이유다. 비결은 본사 직영 원스톱(ONE-STOP) 키친팩토리시스템과 중앙조리시설(CENTRAL KITCHEN) 운영이다. 토고리 옛날막창&소갈비살의 또 다른 특징은 천연과일 숙성 노후우로 냄새 없는 부드러운 막창이다. 참숯 직화구이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 맛에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킨-가성비·나를 위한 소비 대두 치킨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을 강조한 브랜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피자를 넘어 떡볶이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컬래버한 브랜드들이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높은 관심을 얻었다.



/결작떡볶이치킨

윤인철 광주대학교 국제물류무역학과 교수는 “건강과 친환경을 강조한 For Me와 그린오션, 배달어플 확대 등의 영향으로 치킨 브랜드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상권과 창업자금 등을 고려한 창업자의 신중한 선택이 더욱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결작떡볶이치킨 시그니처로 인기 티바두마리치킨 배달전문 소자본

떡볶이와 치킨을 컬래버한 결작떡볶이치킨은 맛과 가성비로 입소문을 탄 브랜드다. 결작의 시그니처 메뉴인 떡닭세트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100만개의 판매고를 올렸다. 배달과 홀, 테이크아웃 등의 다양한 매출 구조로 소자본 창업시장에서 안정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떡볶이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트렌드에 맞는 꾸준한 메뉴 개발도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두 마리 치킨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티바두마리치킨은 배달전문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다 본사의 지원, 전속모델 흥진영 효과 등을 톡톡히 본 브랜드다. 특히 할인 프로모션 비용의 70% 정도를 본사가 지원해 가맹점의 부담을 낮췄다. 티바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약 300여개의 가맹점 중 90% 이상이 배달형”이라며 말했다.

◆가정간편식-편리미엄 효과로 성장 편리미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선정 2020년 외식 키워드 중 하나다. 또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코리아 2020의 10개 트렌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정훈 대표는 “편리미엄에 어울리는 아이템은 반찬전문점 등 가정간편식”이라며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 영향으로 2020년에도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찬전문 프랜차이즈 중 성장세가 눈에 띄는 브랜드는 진이찬방이다.

진이찬방 반찬배달로 매출 상승

지난해 초부터 배달을 본격 시작하면서 가맹점 매출이 2018년 대비 평균 20~30% 이상 상승했다. 진이찬방의 특징은 전국 산지 직송의 신선도 높은 제철 식재료들로 국, 찌개, 밑반찬, 기본반찬 뿐 아니라 아이 반찬, 간식, 스페셜 메뉴까지 총 200여가지의 완성도 높은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커피-비대면+가격, 언택트 기대 디지털을 활용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경영환경 변화에 적용해 현재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확대됐다. 윤인철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과 높은 모바일 이용도는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 강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무인카페 등 커피전문점 시장에 언택트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인카페 등 언택트 바람 거세 카페티아모 AI 시스템으로 운영

젤라또아이스크림로 알려진 카페티아모도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무인커피벤딩머신 스마트피아모를 론칭했다. 연령과 성별을 인식하고 성향을 분석하는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고객 성향에 따른 레시피 운영이 가능하게 특징이다. 자동청소 기능과 재료나 상품을 모니터링해 부족할 경우를 알려주는 모니터링 서비스도 탑재돼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ooul.co.kr

세븐일레븐 “설 선물세트 알뜰 구매하세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세븐일레븐 모바일앱 ‘세븐앱’에서 설 선물세트 ‘핫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명절 선물세트도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깜짝 기획

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세븐앱 ‘핫딜(Hot Deal)’ 코너를 통해 진행되며, 매일 오전 11시마다 지정된 상품(일별 50개 한정수량)을 60%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식용유, 참치 등 명절 선물세트도 보편적으로 많이 찾는 상품들로 구성했다.

이밖에도 세븐일레븐은 명절 베스트 선물세트인 7대 상품을 선정해 세븐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특히 세븐앱을 통해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고향집 인근 점포에서 픽업할 수 있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븐앱에서 선물세트를 구매한 후 상품을 수령하고 싶은 픽업매장을 등록해 주문한 상품을 받으려면 된다. /신원선 기자



치피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NEW

# 치피가이

한국식 파이형 치킨디저트

(요니언 / 치즈 / 칠리)  
시즈닝과 함께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 200원



 더 크고 매운맛  
**하버네로 (L)**  
₩4,300

# VS



**고소한맛 (S)**  
₩3,4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간도 판매 지역

# 전남,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에 두팔 걷었다

전남행복지역화폐 올해 2534억 할인을 최대 10% 넘지 않도록 월 구매한도 70만, 특별기간 100만원

전남도가 이른바 상품권깡과 페이퍼 가맹점 차단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행복지역화폐는 2019년 1108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2534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발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반면 올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맹점 확보에 집중, 시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할인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광주시와 광주 5개 구청, 광역·기초의회는 유신잔재 논란이 있는 새마을기를 철거한 가운데 15일 전남도청에는 청사 앞 새마을기가 걸려 펼쳐지고 있다. /뉴스시스

하고 10%를 적용할 경우 특별기간에 한하며 행정안전부, 도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다.

개인별 월간 구매 한도는 평상시 70만원, 특별 기간 100만원을 최대로 하되, 시군별 조례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 환전 한도 역시 시군별로 조례에 명시토록 했다.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현장점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시군 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사용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류 발행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로 인한 일부 가맹점들의 '상품권깡'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전남도의

회 조옥현의원은 "사업자 등록증 등의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는 페이퍼 가맹점이 양산되지 않도록 상인회나 이·통장의 사업장 실체를 확인해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한다"면서 "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고 부작용 근절 마련을 위해 일부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모바일 등으로의 발행종류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쓰고 싶은 지역화폐, 바르고 건전한 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화순군청

## 화순군

### 故홍남순 생가 복원한다

화순군은 '인권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중인사들이 기다려온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사업은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다.

총사업비 2억6000만 원을 들여 목조 초가 형태의 생가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군은 도곡면 효산리에 있는 홍 변호사의 생가터에 안채와 문간채 등 84㎡ 규모의 건물 2동을 건축하고 마당과 담장 등을 정비했다. 생가는 정갈하고 예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1912년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난 고 홍남순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1세대로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시대의 의인'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 광주시 유출 지하수로 세척 '클린로드시스템'

문화전당~금남로 4가역 등 2곳 비산먼지 제거·도심 열섬 해소 기대

광주 금남로와 상무대로에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이용해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이 구축됐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금남로4가역 0.52km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광주송정역 3.5k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2개 구간을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해 놓은 살수 노즐을 통해 유

출 지하수를 분사해 도로를 세척하게 된다. 특히, 극락교~광주송정역 구간은 클린로드 설치 단일구간으로 전국 최장 구간이다.

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 시작점에 클린로드 시스템 가동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자동제어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상관측장비도 설치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에 분사된 유출 지하수는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 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도심지역 폭염 저감과 시민 편의를 위해 문화전당~금남로공원 350m 구간에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를 이용, 미세 물입자를 고압으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10℃ 가량 낮추는 쿨링포그 시스템도 설치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가로등 형태로 LED조명도 설치돼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불거리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김태수 기자



광주시청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 균형발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가속'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 호평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3월에 상정돼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균형발전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분

감면 규정 마련 등이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토대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

이 법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생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사업에 대해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공장 사업은 직·간접고용 1만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 담양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담양군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 장성군

### 설맞이 전통시장 행사 '푸짐'

장성군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오는 14일 오전 11시 황룡시장에서 연다.

황룡시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주민과 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황룡시장 상인회(회장 정재우)에서 마련한 떡과 장성군이 환경보호 동참을 위해 제공하는 장바구니가 배부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원하는 '황금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이다.

황룡시장 1964년 개장한 장성의 대표적 재래시장이다. 육류와 미곡, 생선, 건어물, 채소, 잡화 등의 품목을 판매하는 41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5

1월 13일 (월)  
음력 : 12월 19일

수도권 날씨  
-5 ~ 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9/0, 동두천 -9/1, 가평 -9/1, 파주 -9/1, 서울 -5/1, 양평 -6/2, 용인 -3/1, 수원 -3/1, 인천 -4/0, 평택 -5/1, 백령도 -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자생력 없는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시설부터 확보해야”

서울연구원 도시재생 사업 점검 1단계 시설, 용도 차별화 부족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발생 “공공임대시설로 구조 정립해야”

오는 3월 전국 1호 도시재생 사업지인 창신송인 일대에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완료된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의 자력 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임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총 147곳(지난해 4월 기준)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2014년부터 종로구 창신 1·2·3동, 송인1동 약 83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창신송인 지역에서 진행된 마중물사업 12개 중 11개가 끝났고 3월에 창신3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원각사가 개관하면 모두 완료된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창신송인 일대에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함께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운영회, 도시재생기업 등의 조직



산마루 놀이터.

/서울시

을 설립해 시설 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력재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구역 내 공급된 시설의 기능이 수익구조와 연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다. 도시재생은 사업시기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창신송인을 포함한 장안평, 창동상계, 세운상가, 가리봉, 해방촌 일대 13개 지역이 1단계에 속한다.

서울연구원이 1단계 사업의 물리적인 성과를 살펴본 결과 해당 지역에 건

립된 시설 대부분이 일반적인 공공시설이거나 도시재생 관련 지원센터로, 시설의 용도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4차 산업혁명과 청년창업 매카임 ‘Y-밸리’로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가에서 계약갱신이 추진되지 않는 등 많은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민승현 연구위원은 “상인들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하길 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기존 전자상가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창업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 ▲중심시가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정립 ▲도시재생 사업의 자력재생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공공임대시설을 확보해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시설이란 도심과 중심시가지에 필요한 공간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공익목적형 임대시설을 의미한다.

서울연구원은 용산전자상가 도시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공공임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했다.

연구원은 “사업대상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복지, 휴게기능의 집적·융합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는 약 91.4%의 전자제품 판매시설과 8.6%의 부대편의시설로 구성돼 있다.

민승현 연구위원과 이슬이 연구원은 용산전자상가 일대 제1공영주차장(새창로 170-4, 5859㎡)과 자동차정류장(한강로3가 40-1051, 3791㎡) 2개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공공임대시설 확보에 관한 사업성을 분석했다.

사업비 조달은 HUG 자금을 80% (1471억원)로 적용하고 20%는 공공재원(368억원)으로 투입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마다 5%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비용대비편익)는 1.75, NPV(순현재가치)는 889억 7231만 8000원, IRR(내부수익률)은 16.09%로 사업성이 인정됐다.

연구진은 “공공임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를 상환하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운영·관리비 외 추가 수익은 도시재생기금으로 조성,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전통시장서 제수용품 50%할인 받으세요”

## 원순씨의 세일즈 성과… 3.3억弗 투자유치

서울시 시장 140곳에서 할인 판매 투호놀이·팔씨름 체험 행사 개최

서울시는 14~23일 시내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승례문수입상가, 용산구 후암시장, 성동구 금남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도봉구 방학도깨비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영등포구 청과시장 등 140곳이다.

일부 시장은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온누

리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떡국 떡 찌기, 만두 빚기, 떡매치기, 율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팔씨름 대회와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린다.

시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71개 시장 주변 도로에서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 동안 허용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설에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美 실리콘밸리 기업 4개사 MOU 600명 이상 신규고용 창출 기대

서울시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이 3억3000만달러(한화 약 40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투자금액 중 2억3000만달러(2700억원)는 그동안 서울시가 2년 정도 꾸준히 투자를 유치해왔던 프로젝트 이고 나머지 1억달러(1800억원)는 이번 순방 중에 개최한 투자간담회에서 확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의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4개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투자유치가 성사된 4개 기업은 ▲빅데이터 기반 클라우드키친 운영 전문기업인 ‘티아이에스(TIS, Technical Infrastructure Solutions)’ ▲빌드블록 ▲라이언 반도체 ▲팔로젠이다.

시 관계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혁신기업이 사업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서울에 설립한다”며 “이를 통해 6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10일 16시 30분(현지 시간) 실리콘밸리 코트라 무역관에서 미국 현지의 신성장 유망기업 4개사로부터 총 2억3000만달러(한화 약 2700억원)의 투자를 서울로 유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서울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TIS는 향후 5년 간 총 2억달러(2320억원)를 투자해 서울내에 54개 클라우드키친을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 114명을 포함해 총 41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키친에 입주한 국내업체가 TIS 본사가 있는 미국 LA나 자회사가 있는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로 진출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TIS는 지난해 5월 박 시장이 이스라엘 순방 중 개최한 창업기업·투자자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김현정 기자

## 동탄 도시철도, 연내 사업윤곽 나온다

경기도 타당성평가·수립용역 공고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오산지역에 건설할 트램(동탄 도시철도) 사업의 윤곽이 올해 연말 가시화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조달청을 통해 ‘동탄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동탄 트램의 2027년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총 사업비 9967억원을 투입해, 화성 반월~오산(14.82km) 구간과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km) 구간 등 2개 구간(32.35km)에 트램을 건설할 계획이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말하며, 운행 시간이 비교적 정확한 지하철과 접근성이 좋은 버

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동탄 트램 사업은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경기도내 최초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계획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과 기술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께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오는 12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의정부)부=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시민속의예산 6000억… 지난해 3배

서울시는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시민속의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속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을 시민이 제안·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속의예산은 신규와 기존 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속의형에 5300억원, 제안형에 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김현정 기자



[산업] SK하이닉스 미래경쟁력 강화 특허 年 2배씩 증가 04



Life

[금융] 교보생명 언제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변화 선도 08



# 짧은 연휴, 가족과 가까운 여행지로... 다낭·사이판서 '설캉스' 즐겨볼까

(설+비캉스)

베트남 다낭 호이안근처 비치.

## 메트로 트래블

올해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한 총 4일로 다소 짧아 아쉽긴 하지만 가까운 동남아 여행을 떠나기에는 제격이다. 남녀노소 온 가족이 따뜻한 구정 연휴를 보내기에 최적의 여행지로 각 여행사는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온 가족이 다모이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설날 연휴,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2020년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모두투어는 최근 올해 1, 2월 해외 여행 예약률을 밝혔는데 대만, 말레이시아 상품 등이 설 연휴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있고 인기휴양지 코타키나발루, 사이판, 베트남과 필리핀 등 가까운 해외여행지가 전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4일간의 짧은 연휴에도 유럽의 인기가 돋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터키와 스페인, 이집트 등 지역이 높은 인기를 얻고있다고 관계자는 알려졌다.

이번 설 연휴 하나투어가 추천하는 상품은 '내가찾던 패키지' 다낭·호이안 4일 상품이다. 베트남 중부지역 여행의 관문 다낭에서는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된 마블마운틴, 다낭 건축물의 상징 다낭대성당, 베트남 최대 불상이 있는 손짜 등을 방문하고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에서

짧은 설 연휴 최적의 여행지 추천 대만·베트남 등 가까운 여행지 강세 대표 휴양지 코나키나발루 인기 서유럽 3개국·네팔 트레킹도 주목

는 투본강 투어, 씨클로 체험 그리고 야간 씨티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베트남의 전통문화와 다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차림다낭쇼, 전통 마사지 2시간, 바나산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노쇼핑·노쇼션 상품으로, 베트남 전통모자 '농'과 원두커피 등을 증정하기도 한다. 26일 출발 기준 142만 4100원에 예약 가능하며, '369 프로모션'으로 3명, 6명, 9명 예약시 각각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할인도 진행중이다.

NHN여행박사는 설 연휴 '서유럽3개국/패키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상품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둘러보는 10일 패키지 여행상품이다. 여행박사 서유럽 3개국 상품은 스위스 2일 일정으로 베른, 인터라켄, 체르마트를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는 차별점이 돋보인다. 예술의 보고인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로마 여행 백미 바티칸 박물관 내부 관람이 포함됐다.

국적기 대한항공을 탑승하고, 전 일정 숙박 및 식사 포함, 유럽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며 전 일정 개인 수신기가 제공된다. 상품가는 1인 219만 9000원부터다.

참좋은여행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새해 다짐 4개 테마'로 분류한 여행 상품 48개를 따로 모아 판매중이다. 참좋은여행 마케팅본부에서 밝힌 4개 테

마는 '나만의 시간', '새로운 도전', '화려한 외출', '행복한 가족'이다. 첫번째 테마 '나만의 시간'은 스위스 일주 9일과 그리스 일주 10일, 다낭 5일 등 12개 여행상품이고, 두 번째 테마 '새로운 도전'은 이집트 일주 10일과 이탈리아 남부일주 9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국 8일 등 12개 여행상품이다. 세 번째 테마 '화려한 외출'은 참좋은여행의 고급여행 브랜드인 '다르고 플러스' 일정을 채택한 서유럽 3국 11일과 동유럽 4국 9일, 북유럽 4국 8일 등 12개 여행상품이고, 네 번째 테마 '행복한 가족'은 스페인 포르투갈 9일 여행상품과 아동반값 할인이 적용되는 하와이 7일, 가족여행 선호도 1위인 괌 PIC 5일 등 여행상품이다.

참좋은여행 새해맞이 기획전은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오는 1월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된다.

온라인투어는 설 연휴 추천여행상품으로 '홍쇼핑HIT' 다낭/후에/호이안 바나산 5일'을 추천해왔다. 1월 24일 저녁에타고 떠나는 온라인투어 추천 다낭 상품은 에메랄드 빛 해변에서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거나 리조트에서 수영을 하며 온 가족이 다같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시타딘 블루 코브 다낭 또는 동급호텔을 이용하며 성인기준 98만9000원부터 이용가능하다.

KRT 여행사가 추천한 '[인도/네팔 14일]' 상품은 네팔에서 즐기는 트레킹 뿐만 아니라 불교 유적의 중심지인 인도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일정에 포함된 아우랑가바드 지역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잔타, 엘로라 석굴의 웅장함을 그대로 느끼는 값진 체험 등이 가능하다. 상품 가격은 233만6800원부터다.

자유투어는 설 연휴 추천상품으로 에어서울 타고 떠나는 '코타키나발루' [초특급수트라하버리조트]호핑투어+반딧불투어+시내관광+야시장투어' 상품을 내놔다. 코타키나발루상품은 출발 날짜에 따라서 상품금액이 큰 차이가 있는데, 1월 21일 에어서울 출발은 94만9000원부터 예약가능하고, 1월 23일 진에어 출발은 117만9000원부터 예약가능하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휴양지이자 천혜의 자연과 환할한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코타키나발루는 남녀노소 온 가족이 따뜻한 구정 연휴를 보내기에 최적의 여행지다. 인천에서 직항노선이 매일 6편씩 운항되고 있으며 5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비행시간과 부산, 무안출발비행편도 운항해 선택의 폭도 넓다. 수트라하버리조트는 설 연휴 기간 여행객들을 위해 리조트 곳곳에서 전통춤 공연, 식음료 프로모션도 진행해 관심을 끌고있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퍼시픽수트라 호텔 수영장



타이베이 ▶ 쇼핑거리 서문정

## 경자년 하늘길에 외항사 뜬다... 특가 프로모션 '풍성'

**타이거에어** 타이베이행 노선 증편 **캐세이퍼시픽** 기내서비스 업그레이드 **싱가포르항공** 인기노선 특가 프로모션

외항사들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신규 및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타이완 저비용항공사 타이거에어 타이완이 3월부터 운항한 인천-타이베이 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해 지난 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향후 노선 운영 계획을 밝혔다.

타이거에어 타이완 인천발 타이베이행 노선은 매주 월, 수, 토요일 오전 2시 30분에 인천을 출발하여 현지 시각 오전 4시 15분에 타이베이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돌아오는 편은 매주 화, 금, 일요일 22시 00분에 타이베이에서 출발, 인천에는 그다음날 오전 1시 30분에 도착한다. 타이거에어 타이완은 3월 29일부터 주 3회에서 증편하여 매일 운항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새해를 맞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의 기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 승객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고급 침구 및 어메니티로는 영국 브랜드인 뱀포드의 제품이 제공된다. 일등석 승객들에게는 600수의 면 매트리스 및 이불, 풀 사이즈 베개 등을 통해 보다 편안한 비행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어메니티 키트는 남성용 또는 여성용으로 제공되며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수, 립밤 등 스킨케어 제품 등이 담겨있다.

싱가포르항공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싱가포르·발리·몰디브·멜버른·바르셀



캐세이퍼시픽은 일등석 승객들에게 600수 면 매트리스 및 이불, 베개 등과 천연성분 어메니티 키트를 제공한다. /캐세이퍼시픽항공



싱가포르항공은 지난해 10월 '실버크리스 라운지' 오픈식을 진행했다. 오픈식 참석자들이 리본을 자르고 있다. /싱가포르항공

로나-케이프타운 등 주요 노선, 인기 여행지 대상으로 신년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부터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며, 판매 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싱가포르항공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싱가포르항공 멤버십 프로그램인 '크리스플라이어(KrisFlyer)' 회원에게 5%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